

2018

정책연구 2018-21

청년활동수당 지원 방안 연구

연구진 김시백 · 박세현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8-21

청년활동수당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김시백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박세현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18JU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청년 수당 지원 사례	11
제1절 중앙 정부 사업	11
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사업	11
2.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13
제2절 지자체 주도 사업	17
1. 서울특별시	17
2. 경기도	18
3. 성남시	19
4. 광주광역시	20
5. 인천광역시	22
6. 대전광역시	23
7. 부산광역시	24
제3절 해외 사례	28
1. 핀란드의 기본소득	28

2.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실험	29
3. 미국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기본소득 실험 (예정)	30
제4절 시사점	31
제3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지원 필요성 검토	37
제1절 청년활동수당의 필요성	37
1. 청년활동 현황	37
2. 청년활동수당의 기대 효과	41
제2절 전북 청년활동수당 기본 방향	46
1. 기본 방향	46
2. 지원 대상	49
3. 수당 지원 규모	51
제4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대상 발굴	57
제1절 청년 유형별 선정 검토	57
1. 전라북도 주력 산업 육성 차원	57
2. 청년 취약 계층 지원 차원	65
제2절 지원 대상 유형 구분	76
1. 유형 선정 개요	76
2. 유형별 지원 대상 설정	78
제5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운영방안	93
제1절 수당 지급 방식	93
1. 지급 방식별 검토	93
2. 수당 활용 가능 대상	101

제2절 수당 지급 절차	102
1. 지역별 인원 배분	102
2. 추진 체계	104
3. 추진 일정	105
4. 대상 선정 방식	107
5. 선정 평가 기준	109
제3절 지속 운영 방안	111
1. 연차별 지원 대상 확대 방안	111
2. 모니터링 방식	112
제6장 요약 및 결론	115
제1절 연구 요약	115
제2절 정책 제언	120
참고문헌	123

표목차 | Contents

[표 2-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사업 주요 내용	12
[표 2-2] 문화활동 증명 기준	15
[표 2-3] 타 지자체 청년수당 주요 내용(1)	26
[표 2-4] 타 지자체 청년수당 주요 내용(2)	27
[표 3-1] 청년활동 위축 특징	37
[표 3-2] 시도별 20대 비경제활동인구 및 변화율 추이	38
[표 3-3] 시도별 30대 비경제활동인구 및 변화율 추이	39
[표 3-4] 전라북도 청년지원사업 현황	48
[표 3-5] 청년 취업 유무별 금전적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50
[표 3-6] 유형별 소득 기준 차이	53
[표 3-7] 중위소득 비율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53
[표 3-8] 유형별 소득 기준 차이를 지원할 경우의 예산 규모	54
[표 4-1] 전라북도 농림어업 부가가치	57
[표 4-2] 전라북도 5대 클러스터 현재, 목표, 추진방향	58
[표 4-3] 귀농귀촌 가구 현황	59
[표 4-4] 전라북도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추이	59
[표 4-5] 귀농귀촌 가구주 연령별 현황	60
[표 4-6] 전북의 대학(교) 예술계열별 학과 정원	61
[표 4-7] 전라북도 내 청년 대중음악 커뮤니티	62
[표 4-8] 전라북도 내 청년 퓨전국악 커뮤니티	62
[표 4-9]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64
[표 4-10] 지역별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의사 비율	67
[표 4-11] 지역별 청년층 중소기업 비취업 사유	68
[표 4-12] 2020년 전라북도 산업별 일자리 수요 전망	69
[표 4-13] 사회복지사 임금 기준	70
[표 4-14] 시도별 실업팀 현황(2017년 기준)	71
[표 4-15] 전라북도 실업선수규모 상위10 종목 현황(2017년 기준)	72

[표 4-16] 전라북도 실업선수규모 하위 10 종목 현황(2017년 기준)	73
[표 4-17] 연령별 인구이동율	74
[표 4-18] 전북청년활동수당 대상 유형	77
[표 4-19] 귀농귀촌인 정의	78
[표 4-20] 2017년 전라북도 농가인구(청년층)	80
[표 4-21] 2017년 전라북도 농업종사기간별 농가인구(청년층)	80
[표 4-22] 2015년 전라북도 농업 종사 가구원	80
[표 4-23] 지역별 문화예술증명인	82
[표 4-24] 연령별 문화예술증명인 현황	82
[표 4-25] 평균매출액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	83
[표 4-26] 전라북도 업종별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85
[표 4-27] 중소기업 업종별 청년층 종사 비율	85
[표 4-28] 중소기업 청년 종사자 수 추정결과	85
[표 4-29] 전라북도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현황	86
[표 4-30] 전라북도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87
[표 4-31] 전국 연령별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현황	87
[표 4-32]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현황	89
[표 4-33] 전북 실업팀 선수 현황	90
[표 5-1] 청년수당 현금 지급 사례	93
[표 5-2]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지역	95
[표 5-3] 청년수당 직불카드 지급 사례	96
[표 5-4] 청년수당 지급 방식별 장단점	100
[표 5-5] 청년활동수당 사용 가능 범위	101
[표 5-6] 시군별 청년활동수당 배정 규모(예시)	102
[표 5-7] 서류심사 평가 항목	110
[표 5-8] 2차 서류 심사 평가 항목	110
[표 5-9] 분야별 청년활동수당 지원 시기	111
[표 5-10] 모니터링 단계 평가 항목	112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 체계	7
[그림 3-1] 청년층 휴학 사유	38
[그림 3-2] 사회보장 유형	42
[그림 3-3] 청년활동 지원에 따른 효과	43
[그림 3-4] 서울 청년수당 수혜자의 사고 체계	44
[그림 3-5] 전라북도 청년 유형별 규모 및 지원 방식	47
[그림 3-6] 유형별 소득 기준	52
[그림 4-1] 전라북도 중소기업 사업체 수 추이	65
[그림 4-2] 전라북도 중소기업 고용자 수 추이	66
[그림 4-3] 전라북도 기업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액(백만원)	66
[그림 4-4] 전라북도 기업규모별 1인당 연간급여액(백만원)	67
[그림 4-5] 전북 청년활동수당 대상 유형	76
[그림 5-1] 사업 추진 주체	104
[그림 5-2] 사업 추진 단계별 역할 분담	107
[그림 5-3] 청년활동수당 대상 선정 단계	108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 구직활동 보장’을 추진함에 따라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춰 전라북도 청년들에게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새로운 청년정책 접근이 필요
- 2017.7.4일 발표한 ‘한국형 실업부조¹⁾’ 정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정부정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7~2018년 청년구직수당(30만원 × 최대 3개월, 90만원)
 - 2019년부터 청년구직수당(60만원 × 최대 5개월, 300만원)
 - 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저소득층 포함) 도입
-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에 청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면서 청년 취업·고용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도내 청년들의 구직 지원을 위한 수당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해 2018년에 관련 지원금의 규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2019년 이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수혜 대상 선정 기준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는 만 19~29세 청년 중에서 1년 이상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

1)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지원 사업

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및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나, 가구소득 수준 기준에서 실질 소득 수준과의 괴리로 인해 부당 수혜 사례가 발생함

- 성남시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상품권 형식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품권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상품권 깡을 통해 유흥비 등으로 소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북도 차원에서는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고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전라북도 청년수당 지급 대상을 농촌에 정착하는 청년, 문화예술분야로 전업계승하는 청년, 3D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대상계층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청년수당 정책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청년활동 수당 도입에 앞서, 수당의 수혜 대상을 발굴하고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의 제시,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책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1) 청년 수당 지원 사례 분석

■ 국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수당 정책 검토

- 수혜 대상 선정 방식
- 지원 방식(현금, 현물, 상품권등)별 장단점 분석

2) 청년 수당 대상 규모 분석

■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기본 방향 설정

- 청년활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본 방향 설정
 - 지원 시급성 측면
 - 효과 극대화 측면
- 수당 지원 규모 산정
 - 적정 지원 금액 검토
 - 적정 지원 인원 검토

■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수혜 대상 발굴

- 귀농귀촌 분야
 - 기존 농촌 청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위 선정
- 제조업 분야
 - 주력 산업 중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범위 선정
 - 제조업 중 3D 업종 분야 범위 선정
- 문화예술 분야

- 정책과제 「예술활동수당 등의 지급기준 수립」연구 범위와 다른 대상 검토

3) 청년 활동 수당 운영 방식 검토

■ 수당 지급 방식 검토

- 현금, 카드, 지역화폐(지역상품권) 등 지급 방식별 장단점 분석

■ 도-시군간 예산 매칭 방식

- 시군의 청년지원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매칭 비율 검토

■ 지속 운영 방안

- 사후 성과 평가 방식 검토

2. 연구의 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타 지역 청년활동수당 운영 사례 조사
 - 지자체별 청년구진촉진수당 관련 대상 선정부터 운영 과정에서 대해 문헌 조사 및 방문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내용 파악
 - 서울, 성남, 광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조사

■ 전문가 자문방법

- 전라북도 청년 계층별 우선 수혜 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 귀농귀촌 청년, 문화예술 전업 청년, 전북 주력산업 취업 청년 등 전북 청년의 다양한 계층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만한 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 활동수당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 타 시도 청년수당 정책 관련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기존 기준(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북 여건에 맞게 기준(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속적으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 체계

2장

청년 수당 지원 사례

-
- 제1절 중앙 정부 사업
 - 제2절 지자체 주도 사업
 - 제3절 해외 사례
 - 제4절 시사점

제2장 청년 수당 지원 사례

제1절 중앙 정부 사업

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사업²⁾

- 지원금액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8.1.1 ~ 2000.12.31 출생자
- 선정인원 : 전국 400명
 - 전북 61명, 경북 63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충남 38명 등
- 지원형태 : 카드 (농협 직불카드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지원제한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상
 - 병역 미필자
 - 사업 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 하지 않는 자 (예정자는 가능)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농축산물 생산, 판매, 가공 제외)
 -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야간과정이나 방통대 제외)
 - 일정 수준 이상(건보료 323천원/월)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선발기준
 - 1차 평가 : (서류심사) 영농(창농)계획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제출
 - 2차 평가 : (면접평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영농(창농)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상담

2) 농림축산식품부(2018),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내용

○ 의무 사항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표 2-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사업 주요 내용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160시간)	필수 과정 (40)	농정제도, 윤리경영 등 농업인 책무, 경영·회계기초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선택 과정 (120)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의무교육 시간 부족 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중단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 적용	당해 연도 미가입시 차기 연도 지원금 지급 정지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전업적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성실 신고	신청 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 추가경정예산-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 사용제한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 불가

2.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³⁾

○ 개요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고,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사업

○ 사업 대상

- 일반 창작준비금 지원

- ①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② 가구원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의 75%이내 예술인
- ③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증빙 가능한 예술인(1건)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①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② 만 70세 이상 (1948년 이전 출생)
- ③ 예술 경력 20년 이상 (1998년 이전) 증빙 가능한 예술인
- ④ 신청 후 예술활동수행 및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 참여 제한

- 만 19세 미만 예술인 (2000년 이후 출생)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신청일 현재)
- 해당 사업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공고일 해당 월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접수자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보험급여 정지 중인 대상자일 경우
-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 지원금을 교부받

3)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 창작준비금 지원 내용
(<http://www.kawf.kr/social/sub02.do>)

은 예술인 참여 제한

- 2018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예술인 참여 제한
- 창작준비금 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2018년도 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선정은 1회만 가능
- 재단사업 참여제한 중인 예술인 참여 제한

○ 추진 체계

- 일반



- 원로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 14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 증명 (신고사실없음) 각 1부

* 발급일자 30일 이내, 발급처 : 세무사 민원실 / 국세청 홈텍스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일자 14일 이내)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혹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 제출)

- 일반 창작준비금 지원시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시 : 20년 이상 (1998년 이전 실적) 예술활동 경력 증

빙자료 1건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보고서 1부

[표 2-2] 문화활동 증명 기준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있는 사람
영화	<p>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연예(演藝)	<p>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만화	<p>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p> <p>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출처 :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 창작준비금 지원 내용(<http://www.kawf.kr/social/sub02.do>)

제2절 지자체 주도 사업

1. 서울특별시⁴⁾

- 명칭 : 서울시 청년수당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018. 2. 20. (화) 이전 서울시 거주(전입일) 만 19세~29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1차)
- 지원형태 : 카드
- 지원제한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선발기준
 - 1차 평가 : 가구소득(건강보험) 60%,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40%,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 가점 12%
 - 2차 평가 :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이 사업취지에 부합여부 확인
- 사용제한
 - 취업활동에 관한일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만 사용해야 함
 - 최소 2개월 조건 없이 지급 후, 3개월부터 월 1회 지출내역 보고서를 작성해

4) 서울시 청년수당(youthhope.seoul.go.kr)

서울시에 제출해야함.

- 지급중지사유
 - 결과보고 미제출자
 - 서울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만 지급
 - 취, 창업등의 경우 다음달 까지 지급
- 접수기간 : 2018. 3. 2. (금) 09:00 ~ 3. 13. (화) 18:00 (12일간)
- 신청 방법 : 온라인시스템 (youthhope.seoul.go.kr)
- 담당자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88)

2. 경기도⁵⁾

- 명칭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018. 3. 9. (금) 까지 경기도 거주(전입일) 만 18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2,300명
- 지원형태 : 카드
- 지원제한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5) 경기도 일자리재단(young.jobaba.net)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선발기준
 - 구직활동계획서 30%, 가구소득(건강보험) 30%,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20%, 경기도거주기간 20%
- 사용제한
 -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 포괄적 사용 가능
 -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
- 지급중지사유
 -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자 및 구직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경기지역 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만 지급
 - 조기취업의 경우 36시간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해 근속여부 확인 후 잔여금액의 50%이내를 지급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8. 3. 12. (월) 09:00 ~ 3. 23. (금) 18:00 (12일간)
-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young.jobaba.net)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 담당자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센터 (031-270-9710)

3. 성남시⁶⁾

- 명칭 : 성남시 청년배당
- 지원금액 : 매분기 25만원씩 최대 1년간 100만원
- 지원대상 :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전원

6) 성남시청(www.seongnam.go.kr)

- 선정인원 : 2018년 1분기 1만 773명 (2018년 예산액 : 109억원)
- 지원형태 : 성남사랑상품권
- 사용제한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2,899개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불가 :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 세이브존, 홈플러스 외), 기업형 슈퍼(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키스클럽마트 외), 유흥주점, 뷔페, 음식점 등
- 지급중지사유
 - 상품권 판매 적발시 (2분기부터는 카드 발급 예정 및 유효기간 설정 예정)
- 접수기간 : 1분기 2018. 1. 19. (금) 09:00 ~ 3. 30. (금) 18:00
- 신청 방법 : 기간 내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담당자 : 거주지 주민센터

4. 광주광역시⁷⁾

1) 광주청년드림사업

- 지원금액 : 세후 110만원 정도 (4개월간 주 25시간, 시간당 8,840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300명
- 지원형태 : 현금 (본인명의 통장 입금)
- 지원제한
 - 기존에 참여한 청년
 - 현장면접 미참가자 및 탈락자

7) 광주청년드림 공식홈페이지(gj3dream.modoo.at)

- 선발기준
 - 우선조건 : 첫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 접수기간 : 2018. 2. 12. ~ 3. 13.
- 신청 방법 : 온라인시스템 (<https://gj3dreams.modoo.at>)
- 담당자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12)

2) 청년교통수당 (2017년 기준)

- 지원금액 : 매월 6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30만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800명
- 지원형태 : 교통카드 (매월 휴대폰에 모바일 충전바코드 발송)
- 지원제한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 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청년희망재단 청년 면접비용 지급사업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70-100%이상 가구 청년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 담당자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12)

3) 청년드림수당 (예정)

-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240만원

5. 인천광역시⁸⁾

- 명칭 : 청년일자리지원금 (2017년 종료)
- 지원금액
 - I 유형 : (구직활동비) 200,000원×3개월 (포인트 정산)
 - II 유형 : (취업성공수당) 200,000원 (현금)
- 지원대상
 - I 유형 : '17. 1. 1.이후 취업성공패키지 III단계 참여중인 저소득층 청년
 - II 유형
 - ① '17. 1. 1.이후 취업한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당해연도 3개월 이상 유지 자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인된 자)
 - ② '16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중위소득 80%이하로 소득이 확인된 미 취업청년이'17. 1. 1.이후 취업한 자
 - ※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위탁기관의 입증자료 첨부
 - ⇒'17. 취업성공패키지 지침에 의한,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적용
- 선정인원
 - I 유형 : 4,000명
 - II 유형 : 3,000명
- 지원형태 : 포인트 및 현금
- 사용제한
 - I 유형 : 취업활동에 관한일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만 사용해야 함
- 접수기간 : 2017. 05. 01. ~ 2017. 12. 13.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담당자 :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창업지원과 (032-440-4162)

8) 인천광역시청(feild.incheon.go.kr)

6. 대전광역시⁹⁾

- 명칭 :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180만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 거주(전입일) 만 18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5,000명
- 지원형태 : 카드 (포인트차감 방식)
 - 온라인 : 포인트차감 (홈페이지내 제휴업체)
 - 오프라인 : 카드사용 → 사용승인신청(25일까지) → 심사승인(매월말일) → 포인트 차감 및 환급 (다음달 20일)
- 지원제한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이거나 종료일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선발기준
 - 1차 평가 : (정량평가) 연령, 거주기간, 미취업 여부, 가구소득, 기타 필수 및 추가요구 서류의 제출여부 등 자격요건
 - 2차 평가 : (정성평가) 정량평가 적합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상담

9)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시스템(www.houthpassdaejeon.kr)

- 사용제한
 - 취업활동에 관한일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1일 1식 1만원 이하 등)에만 사용해야 함
- 지급중지사유
 - 대전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취업·창업 등
- 접수기간 : 매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시스템 (www.youthpassdaejeon.kr)
- 담당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25)

7. 부산광역시¹⁰⁾

- 명칭 : 청년디딤돌카드
-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총 240만원
- 지원대상 : '17년 7월 1일 이후 부산시 계속 거주 만 18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315명
- 지원형태 : 카드
- 지원제한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고용보험(상용) 가입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 가구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또는 생계급여(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10)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플랫폼(www.busan.go.kr/young)

- 선발기준
 -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서) 40%, 가구소득수준(건강보험료) 60%
- 사용제한
 - 취업활동에 관한일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만 사용해야 함
 - 분기마다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지급중지사유
 -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자
 - 부산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및 취, 창업 등의 경우
- 접수기간 : 2018. 2. 1. (목) ~ 2. 12. (월) (12일간)
- 신청 방법 : 온라인시스템 (<http://www.busan.go.kr/young>)
- 담당자 : 부산시청 비전추진단 (051-888-1304)

[표 2-3] 타 지자체 청년수당 주요 내용(1)

구분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명칭	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	청년배당
지원 금액	매월 50만원씩 최소2개월-최대6개월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매분기 25만원씩 최대 1년간 100만원
지원 대상	①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2018.2.20)이전 서울 거주 ②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만19~29세	①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2018.3.9) 경기도 거주 ② 만18세~만34세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전원
선정 인원	4,000명 내외	2,300명	2018년 1분기 1만 773명 (2018년 예산액 : 109억원)
지원 형태	카드	카드	성남사랑상품권
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선발 기준	1차:가구소득(건강보험) 60%,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40%,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 가점 12% 2차: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이 사업취지에 부합여부 확인	- 구직활동계획서 30%, 가구소득(건강보험) 30%,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20%, 경기도거주기간 20%	-
사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에 관한일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만 사용 - 최소 2개월 조건 없이 지급, 3개월부터 월 1회 지출내역 보고 서울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 포괄적 사용 가능 -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2,899개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불가 :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 세이브존, 홈플러스 외), 기업형 슈퍼(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킴스클럽마트 외), 유흥주점, 뷔페, 음식점 등
지급 중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 미제출자 - 서울지역외 거주지 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만 지급 - 취,창업 등의 경우 다음 달 까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자 및 구직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경기도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만 지급 - 조기취업의 경우 36시간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해 근속여부 확인 후 잔여금액의 50%이내를 지급할 수 있음 	-
접수 기간	'18. 3. 2.(금) 09:00 ~ 3. 13.(화) 18:00	'18. 3. 12.(월) 09:00 ~ 3. 23.(금) 18:00	'18.1.19-'18.3.30
신청 방법	온라인시스템(youthhope.seoul.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young.jobaba.net)	기간 내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담당 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88)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센터 (031-270-9710)	거주지 주민센터

[표 2-4] 타 지자체 청년수당 주요 내용(2)

구분	광주전남			인천	대전	부산
명칭	광주청년드림사업 (청년인턴)	청년교통수당 (2017년)	청년드림수당 (예정)	청년일자리지원금 (2017년 종료)	청년취업허용카드	청년 디딤돌카드
지원 금액	세후 약 110만원 정도	월 6만원씩 5개월간	월 40만원씩 6개월	월 20만원씩 3개월 또는 수당 20만원	월 30만원 씩 최대 6개월 총 180만원	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총 240만원
지원 대상	광주거주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광주거주 만19세~29세 미취업청년	미정	17. 1. 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인 만 18~34세 이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 거주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17년 7월 1일 이후 부산 계속 거주 만 18~34세 미취업청년
선정 인원	300명	800명	미정	7,000명 (I 유형 4,000명, II유형 3,000명)	5,000명	315명
지원 형태	현금 (본인명의 통장 입금)	교통카드 (매월 휴대폰에 모바일 충전카드 발송)	미정	- I 유형 : (구직활동비) 200,000원×3개월 : 포인트 정산 - II유형 : (취업성공수당) 200,000원 (현금)	카드 - 온라인 : 포인트차감 (홈페이지내 제휴업체) - 오프라인 : 카드사용 → 사용승인신청(25일 까지) → 심사승인(매월말일) → 포인트 차감 및 환급	카드
지원 제한	- 기존에 참여한 청년 - 현장면접 미참가자 및 탈락자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 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존 중위소득 70~100%이상 가구 청년 제외	미정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원을 제한함 - I 유형 : '17. 1. 1.이후 취업성공패키지 III 단계 참여중 인 저소득층 청년 - II유형 ① '17. 1. 1.이후 취업한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연도 3개월 이상 유지자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인된 자) ② '16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중위소득 80%이하 로 소득이 확인된 미취업청년이 '17. 1. 1.이후 취업한 자 ※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위탁 기관의 입증자료 첨부 ⇒ '17. 취업성공패키지 지침에 의한,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적용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 학생은 지원가능)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이거나 종료일이 6개월이 경 과되지 않은 자 - 기존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거 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 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 원가능) - 고용보험(상용) 가입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 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존 중위소득 80%이상 가구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발 기준	- 우선조건 : 첫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	미정	-	- 1차 평가 : (정량평가) 연령, 거주기간, 미취 업 여부, 가구소득, 기타 필수 및 추가요구 서류의 제출여부 등 자격요건 - 2차 평가 : (정성평가) 정량평가 적합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상담	-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서) 40%, 가구소득수준(건강보험료) 60%
사용 제한	-	교통카드	미정	- 자격증 취득 접수비, 교통비, 면접복장대여비, 사진촬영 비, 취업관련 교재구입비에만 사용해야함	- 취업활동에 관한일 (단, 식비-1일 1식 1만 원 이하 등)에만 사용해야 함	- 취업활동에 관한일에만 사용해야 함 - 분기마다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지급 종지 사유	-	-	미정	-	- 대전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취 업·창업 등	-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자 - 부산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 진포기 및 취, 창업등의 경우
접수 기간	'18. 2. 12.(월) ~ 3. 13.(화)	'18. 2월 ~ 12월	미정	'17. 05.01 ~ '17. 12.31	연중 매월 10일까지	'18. 2.1 ~ 2.12
신청 방법	광주청년드림 온라인신청 (https://gj3dreams.modoo.at)	방문, 우편,이메일 접수	미정	방문, 우편,이메일 접수	홈페이지(youthpassdaejon.kr) 가입후 신청	홈페이지 (busan.go.kr/young)
담당 자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12)	-	-	일자리경제국 창업지원과 032-440-4162	-	부산시청 비전추진단 051-888-1304

출처 : 각 관련 홈페이지

제3절 해외 사례

1. 핀란드의 기본소득¹¹⁾

- 주관기관 : 핀란드 사회보장국 (KELA)
- 대상 : 2016년 11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는 25~58살 사이의 실업자 2,000명 무작위 선정
- 목적
 - 수혜자의 구직행태 변화를 확인하고 기본소득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실업률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 즉,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임.
 - 사회 보장 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의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재설계 될 수 있는가?
 - 사회보장제도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사람들에게 일을 장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 될 수 있는가?
 -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복잡한 복지 제도를 단순화 할 수 있는가?
- 지원 금액 : 2년간 매달 560유로 (약 72만원)
- 사용 제한 : 없음
- 의무 : 사용 후 용도 명기 (교육, 육아, 연금, 재활 등)
- 진행경과
 - 2016년 12월 : 2,000명의 시민이 무작위로 선정됨
 -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2년에 걸쳐 기본소득 지급 중
- 결과
 - 핀란드 정부는 2018년 12월 말 지급을 끝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연장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BBC, 2018¹²⁾), 실험 설계자인 올리 칸가스 핀란드 사회보장국 국장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결과는 2019년 말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힘(한겨레, 2018¹³⁾)

11) 자료 : 핀란드 사회보장국 홈페이지

(<https://www.kela.fi/web/en/basic-income-objectives-and-implementation>)

12) 자료 : BBC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3866700>)

2.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실험¹⁴⁾

- 주관기관 : 온타리오 아동, 커뮤니티, 사회보장부
- 대 상 : 실험 기간 동안 18~64살의 연수입 34,000달러 이하의 독신 가구주 또는 48,000달러 이하의 기혼자 중 지난 12개월 이상 다음의 한 곳에서 거주한 사람
 - 브랜트 카운티, 브랜트포드, 해밀턴 지역
 - 슈니마 타운십, 콘미 타운십, 오키너 타운십, 길리스 타운십, 니빙 자치구, 올리버 파이펀지 자치구 및 샌더베이
 - 린제이
- 목적
 - 기본소득이 수혜자의 기본 욕구와 교육, 주택,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
- 지원 금액 : 최대 3년간 독신 가구주의 경우 연간 16,989 달러, 기혼자 중 연간 24,027 달러이며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의 50%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500달러 추가 지급
- 사용 제한 : 없음
- 의무 : 정기적으로 식량확보와 건강, 고용, 주택 등 관련 조사 참여
- 진행경과
 - 2016년 3월 : 온타리오 예산처에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가 논의됨
 - 2016년 6월 : 휴 시걸 의장에게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제출
 - 2016년 11월 3일~2017년 1월 31일 : 협의 진행
 - 2017년 4월 : 케이트 린 원주사가 온타리오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발표 및 참가 모집
 - 2017년 10월 : 기본소득 지급
 - 2018년 8월 : 새정부가 기본소득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할 것을 발표(BBC, 2018년 8월 15일)

13) 자료 : 한겨레 2018년 5월 4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3260.html>)

14) 자료 : 온타리오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ontario.ca/page/ontario-basic-income-pilot>)

15) 자료 : BBC 2018년 8월 1일
(<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45023510>)

- 결과
 - 새롭게 정부가 선출됨에 따라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험이 중단됨

3. 미국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기본소득 실험 (예정)¹⁶⁾

- 주관기관 : 와이콤비네이터(벤처 캐피탈회사)
- 대상 : 3,000명의 미국 시민 무작위 추첨
- 목적
 -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시간 사용, 정신적·신체적 건강, 웰빙 주관, 재정 건전성, 결정 프로세스, 정치적·사회적 행동, 범죄, 아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지원 금액 : 최대 3-5년간 매달 1,000달러 1,000명 (대조그룹 : 매달 50달러 2,000명)
- 사용 제한 : 없음
- 의무 : 시간 사용, 정신적·신체적 건강, 웰빙 주관, 재정 건전성, 결정 프로세스, 정치적·사회적 행동, 범죄, 아동의 효과 등의 조사 참여
- 진행경과
 - 2016년 9월 :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시에서 10명 이하의 시민을 추첨하여 1년간 파일럿 실험을 진행
 - 2017년 9월 : 와이콤비네이터는 실험의 범위를 3,000명까지 확장할 것을 발표함
- 결과
 - 현재 프로젝트 제안서의 피드백을 검토중임

16) 자료 : 와이콤비네이션 블로그(<https://basicincome.ycr.org/our-plan/>)

제4절 시사점

■ 수당의 지나친 목적 지향적인 경향

- 우리나라에서는 미취업 청년, 창업 혹은 창농 초기 청년과 같이 수당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의무 교육 이수,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여러 유형의 감시 장치를 두어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정책 수혜자인 청년의 입장에서는 여러 의무 조건들을 둘 경우, 귀찮아 하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실제로 2017년 전국 만 18~29세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취업지원정책 중 취업성공패키지의 만족도(10점 만점에 6.11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¹⁷⁾
- 또한 응답자의 39%만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가 취업능력 향상 미흡(48.6%), 교육·훈련과정의 단순함(43.2%), 훈련기관 선택제약(40.5%)으로 기대보다 큰 효과를 얻지 못함
- 또한 수당 사용의 가능 범위 역시 미취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취업과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구직 이외 다른 사회 활동 경험이나 인간관계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해 정책들이 지나치게 목적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구직 희망 청년들에게 취업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시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활동 경험을 신경 쓸 여유가 없겠지만, 최소한의 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는 기본 소득 개념으로 접근하여 미취업 청년 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금 형식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추진하여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음

17) 서울연구원 언론보도(2016.8.11),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포기하고 ‘청년수당’ 선택한 이유」, <https://www.si.re.kr/node/55728>

- 또한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 수당들의 경우 대부분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촉진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입 초기 단계이어서 효과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도입한 서울 사례를 보면 취업률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수혜 청년들에게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아직까지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나 서울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수당의 목적을 너무 목적 지향적으로 두지 않고 사회 생활 및 활동 보장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미취업 청년에게만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효과

- 최근 청년 실업률이 문제가 되면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취업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수당 지급 사업이 중앙 정부의 고용 노동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수당 지급이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임
-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 탐색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직 촉진 목적의 수당이 취업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구인-구직자간의 미스매치가 크기 때문임
- 김시백(2015)¹⁸⁾의 연구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실업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실업의 68%가 노동수요 부족 즉,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구직 촉진 목적의 수당이 청년들의 취업률 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임
- 청년 수당의 효과가 취업률 제고 보다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

18) 김시백(2015),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전북연구원

준다면, 미취업 청년보다는 취업은 하였으나, 소득 수준이 낮아 사회활동을 할 여유가 없는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수당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임

- 또한 청년 고용시장의 특징 중 하나로 짧은 근속 기간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복지 혜택으로 첫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직하여 다시 실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높은 실업율의 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음
- 따라서 직장 또는 창업 등의 사회 활동 초반부에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 장벽을 청년 수당으로 완화해주어 청년의 근속 기간을 연장시켜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수당 지급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할 가능성과 함께 해당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취업 청년의 경우 최소한 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3

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지원 필요성 검토

Jeonbuk Institute

제1절 청년활동수당의 필요성

제2절 전북 청년활동수당 기본 방향

제3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지원 필요성 검토

제1절 청년활동수당의 필요성

1. 청년활동 현황

1) 청년활동 특징

- 청년층의 경제 활동이 제약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사회적 비용 부담도 증가
 - 고용 여건 악화, 부채 부담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층은 사회 진출이 늦어짐
 - 장기 실업 등 청년층의 사회 진출 지연은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장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 결혼 및 출산 역시 지연되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악화
 - 저출산·고령화 악화는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재생산을 제약할 우려
- 이러한 청년층 활동 제약의 특징으로 절벽(CLIFF)¹⁹⁾으로 표현할 수 있음

[표 3-1] 청년활동 위축 특징

Out of Collar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참여 소외
Loan increased	부채 증가, 재무 건전성 악화, 연체 증가 등 채무 부담 가중
Impoverished	청년층 및 이를 부양하는 부모 세대의 소득 감소
Frugal	소비지출 감소, 특히 기본 생필품 소비지출 감소
Fatigue	학교활동 이외 학습시간 증가, 주거시설 취약, 스트레스성 질환 증가

19) 홍준표(2018),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벼랑(CLIFF) 끝 위기의 한국 청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8-07

2) 청년활동 위축 유형

■ 일자리 소외

- 대학 입학 후에도 휴학을 점차 많이 하고 있으며 휴학 사유도 ‘취업 및 자격 시험 준비’가 빠르게 증가
- 청년층 취업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어려우며, 특히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



[그림 3-1] 청년층 휴학 사유

- 전라북도의 2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2015년에 전년 대비 8.24%로 크게 늘어난 결과, 2010년 83천명에서 2016년 91천명으로 소폭 늘어남

[표 3-2] 시도별 20대 비경제활동인구 및 변화율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2,347	2,296 (-2.17%)	2,315 (0.83%)	2,411 (4.15%)	2,330 (-3.36%)	2,313 (-0.73%)	2,269 (-1.90%)
전북	83	87 (4.82%)	86 (-1.15%)	85 (-1.16%)	85 (0.00%)	92 (8.24%)	91 (-1.0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전라북도의 3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51천명으로 2012년을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3] 시도별 30대 비경제활동인구 및 변화율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2,055	2,030 (-1.22%)	1,980 (-2.46%)	1,929 (-2.58%)	1,832 (-5.03%)	1,788 (-2.40%)	1,735 (-2.96%)
전북	66	59 (-10.61%)	65 (10.17%)	61 (-6.15%)	57 (-6.56%)	56 (-1.75%)	51 (-8.93%)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청년 창업은 활성화되었지만 창업하더라도 생존에 어려움
 - 한국의 25~34세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 중 창업 42개월 이내의 신생 기업 비율을 의미하는 '초기창업활동비율(Total early-stage Entrepreneurship Activity: TEA)'은 2016년의 4.7%에서 2017년에는 12.8%로 큰 폭으로 상승함
 - 2015년 기준 30대 미만 연령층 기업의 생존율(4)은 전체 연령층 기업의 생존율에 비해 2/3 수준으로 낮음

■ 부채 증가

-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1인당 대출액은 감소세이지만, 1인당 연체 잔액은 오히려 증가
 - 학생들은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제도를 많이 이용하면서 학자금 대출 총규모는 2010년 2조 8,673만 원에서 2016년 1조 9,809만 원으로 감소함
 -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2년 370만 원에서 2016년 320만 원까지 감소함
 - 2012년 이후 학자금 대출 연체잔액 및 연체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연체 잔액은 여전히 490만 원 수준임

■ 소득 감소

- 비정규직 부문에서 청년 채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전체임금 대비 청년층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큼
 - 신규 채용된 청년(15~29세)층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54.1%에서 2015년 64.0%로 확대되고 있음
 - 정규직 부문에서는 전체임금 대비 청년층임금 비율이 2011년 72.2%에서 2016

년 71.2%로 소폭 하락함

- 그러나 비정규직 부문에서는 전체임금 대비 청년층 임금 비율이 동기간 78.3%에서 75.9%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함
- 고용 및 소득 부진을 겪는 청년층이 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 역시 증가하고 이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령층의 소득은 감소
 - 청년층 본인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 제약

-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이 2013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
 - 30세 미만의 청년가구 소비지출은 2011년 연간 약 1,959만원에서 2013년 2,299만원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2016년 1,869만원으로 축소됨
 - 2016년 전체가구 대비 청년가구 소비지출 비율은 71.9% 수준이며, 2013년 이후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 청년가구는 교육, 오락·문화, 주거 부문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한 반면, 식료품, 보건 등 부문에서는 소비가 감소
 - 청년가구는 교육, 오락·문화 등 자기계발 관련 소비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가구의 교육, 오락·문화, 주거의 소비증가율은 전체가구의 소비증가율 상회한 반면, 가정용품과 보건에 대한 소비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음

■ 피로 가중

- 국내 청년층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미취업 상태로 구직 준비를 하는 청년이 증가
- 구직이 어려워지고 장기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증가하면서 청년의 학교활동 이외의 학습 시간이 크게 증가

- 1999년 청년층의 학업 시간소비는 학교활동과 학교 활동외 학습이 모두 일 평균 41분을 기록함
 -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학교활동보다는 학교활동외학습의 비중이 크게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학교활동이 일평균 33분에 그친 반면, 학교 활동 이외 학습은 73분을 기록함
 - 이는 일명 취업용 ‘스펙쌓기’를 위해 학생들이 학교활동 이외 학습에 더욱 치중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의 오랜 취업 준비, 경쟁 심화 등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 환자수가 급증
-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발병은 중장년층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 청년층 환자가 급증함
 - 2012~2016년간 국내 청년층 인구 10만명 당 우울증 환자수의 연평균 증기율은 4.7%로 전체 세대의 1.6%를 상회함
 - 또한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질병도 인구 10만명 당 환자수는 중장년층에 비 해 적지만, 최근 증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임

2. 청년활동수당의 기대 효과

1) 사회보장 측면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시스템은 공공과 민간 양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공공 측면의 사회보장시스템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유형은 공공부조, 사 회서비스와 사회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 고 보충적 소득 제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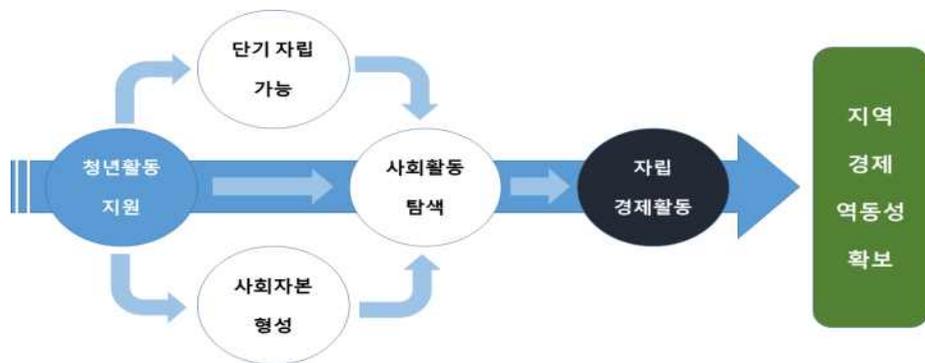


[그림 3-2] 사회보장 유형

-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은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 보육, 요양, 재활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아,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와 연계하여 실업이나 은퇴 이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 이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미취업 단계의 청년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회 생활 즉 취업 초기에는 연금 및 보험의 축적 수준이 극히 낮기 때문에 중장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청년층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보장 측면에서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는 마땅한 사회보장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수당의 경우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빈틈을 메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경제 활성화 측면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인구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경제 성장의 동력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임
- 경제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사회 진입 문턱을 낮춰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함
- 하지만, 현실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학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등 사회 진입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음
- 또한 사회에 진입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청년의 사회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진입 이후 정착하는 단계까지 소득의 보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3-3] 청년활동 지원에 따른 효과

-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충적인 소득 지원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사회 진입의 문턱을 간접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사회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청년 수당으로 창업이나 창작을 위한 장비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청년수당이 청년의 구직과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함
- 서울시 청년 수당의 경우 구직 활동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돈과 함께 여유와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음

제2절 전북 청년활동수당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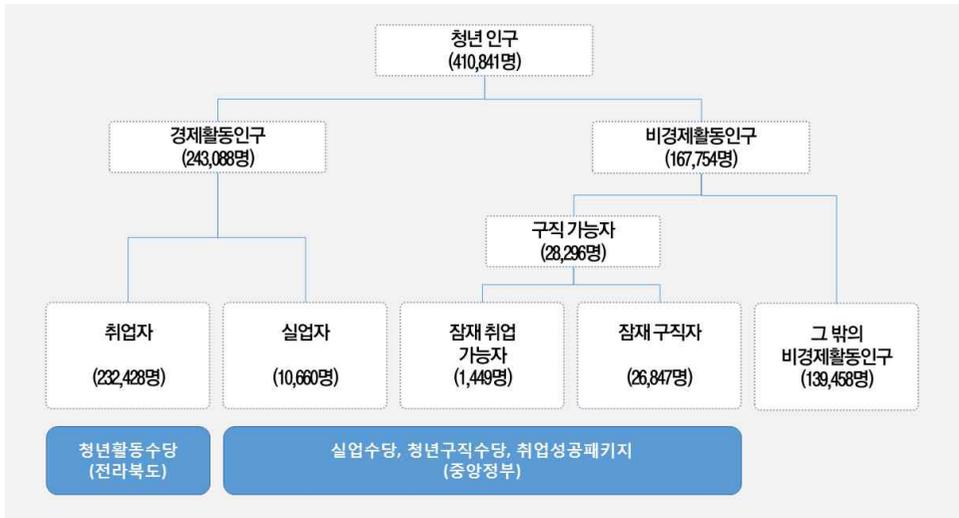
1. 기본 방향

■ 청년 활동 보장형으로 저소득 취업 청년 대상 생활자금 지원

- 청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질 좋은 직장을 얻어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저성장 기조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 차원이 아닌 수요 차원에서 공공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청년 활동의 제약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의 취업 활동 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됨
-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구직과 직접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함
-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소득 개념에서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취업 청년들의 사회 활동 독려가 더 효율적임
 - 미취업 청년이 소득이 없고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복지 보장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상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지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수당의 사용 허용 범위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효과의 극대화가 어려움
 -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취업 수당과 같은 경우, 취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취업 청년 지원보다는 효과가 낮음
- 전라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직 수당을 받은 청년이 전라북도에 취업할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책 효과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 즉, 미취업 청년의 문제는 취업 수당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전라북도는 취업 청년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주1) 통계개발원의 국제기준에 맞는 고용보조지표 기준에 맞춰 전라북도 청년 인구를 구분함
- 주2) 잠재 취업 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못한 자
- 주3) 잠재 구직자 :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그림 3-5] 전라북도 청년 유형별 규모 및 지원 방식

- 위 그림과 같이 미취업 청년은 경제활동인구 중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의 수당을 주는 것은 중복 수혜 및 낮은 정책 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 실업자의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직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취업무관심자 등은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당보다는 교육이나 구직 장려 정책이 더 효율적임
-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 가능자들이 구직 수당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등 여러 지원을 받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객관적으로 찾아내고 선별하는 것이 어려움

- 2018년 기준 전라북도 청년 지원 사업 중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규모가 1,250억원으로 전체 청년 지원 사업 1,441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4] 전라북도 청년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계		미취업 청년 지원		취업 청년 지원		공통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계	80	144,136	56	125,007	3	9,435	21	9,694
취업 및 고용	4	103,265	41	93,830	3	9,435		
창업	11	24,543	11	24,543				
문화 및 여가	10	7,019					10	7,019
복지	9	5,409	2	2,784			7	2,625
거버넌스	6	3,900	2	3,850			4	50

- 따라서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의 정책 대상을 취업 혹은 창업을 하였으나,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주 대상으로 선정함

■ 전북 특성에 맞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 현재 활발하게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서울, 성남, 광주, 부산 등 대도시권에 속한 지역으로 주요 정책 목적이 취업 혹은 창업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농촌 청년, 저임금 청년, 타 지역 출신 청년 등 다양한 성격의 청년 계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기에는 비효율적임
- 또한 이미 중앙정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경우 중복 지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활력을 불러 일으키면서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

는 청년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층을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다양화하여 지원해줘야 함

2. 지원 대상

-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의 대상은 이미 취업하여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아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역 정착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청년임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취업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① 저소득 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 보장 시스템 부족

- 미취업자 대상으로 정부(고용노동부)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구직촉진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하는 추세
- 이에 반해 취업을 하였지만, 비정규직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대상의 지원 사업은 극소수이며, 그나마 유사한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미 취업한 청년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영농정착지원금이나 예술복지재단의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 창업청년 대상 공간 제공 등 일부 활동 예정 혹은 활동 초기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회 활동 초반부에 해당하지만 지역 정착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규모는 매우 부족함

[표 3-5] 청년 취업 유무별 금전적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취업 유무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 형태
취업 청년	청년농업인 영능정착지원금	100만원 × 36개월	개인 직접 지원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50~60만원 × 12개월	개인 및 기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36개월간 총 2,400만원	개인 및 기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12개월간 총 900만원	기업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월 5만원	개인 지원
미취업 청년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1단계(상담, 진단) 참여수당 20만원 2단계(직업능력향상) 훈련비 200만원, 참여수당 40만원 × 6개월 3단계(취업알선) 구직촉진수당 30만원 × 3개월	개인 지원
	재학생 직무체험	월 40만원	개인 지원
	내일배움카드	1년간 200만원	개인 지원
	K-Move 스쿨	1년간 800만원	개인 지원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1회 17만원	개인 지원

② 미취업 청년 대상 지원 수당 효과의 실효성 낮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자기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동떨어진 기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수혜자의 50% 이상이 1년 이내 직장을 떠나고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취업 청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수당을 더 선호하며, 실제로 청년수당으로 갈아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서울의 청년수당의 경우 구직 목적 뿐만 아니라 생활자금 지원 형식이 강해 청년 입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취업을 향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 청년은 일자리 탐색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미취업자에게 수당을 줄 경우, 수당으로 구직 활동을 하여 타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먹튀' 문제가 발생

③ 취업 초기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기대

- 청년 일자리 현황의 특징 중 하나는 초기 이직률이 높는데, 지방에서 첫 직장을 구하더라도 낮은 임금 수준과 복지 혜택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향이 강함
- 첫 직장 소재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 수준과 복지 혜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소득 보조가 적정함
- 또한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활동 보장형 생활자금 지원이 필요함

④ 지역경제 효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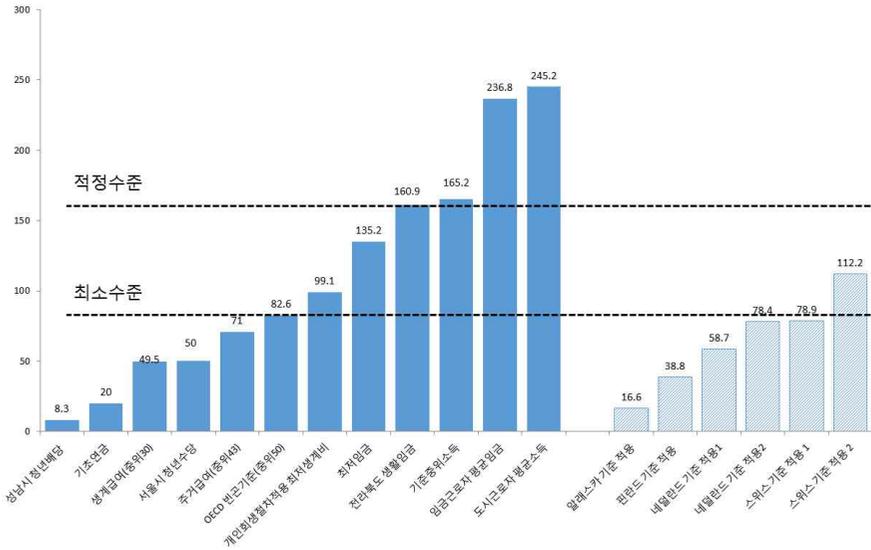
-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수당의 주요 사용처는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교통비 등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소비하게 되는 반면, 취업한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생활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제약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됨
- 따라서 청년활동수당의 사용을 전라북도 내로 제한할 경우, 청년활동수당을 통한 소비 활동으로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로 파생 효과 기대

3. 수당 지원 규모

1)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청년들이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한 적정 임금 수준과 최소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은 약 230만원이며,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에는 약 1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소득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최소 수준을 맞춰주는 형식으로 지원함



출처 : 조권중 외 2인(2017),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서울연구원

[그림 3-6] 유형별 소득 기준

-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의 경우에는 기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수준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춰줄 수 있는 생활자금 지원 성격을 가짐
- 따라서 적정수준(생활임금 혹은 기준중위소득)에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의 최소 수준간의 차이만큼을 지원해줘야 함
- 각 기준별로 지원수준을 계산한 결과, 최소 6만원에서 최대 9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활동수당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수준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 할 경우 적정 지원 금액은 30~70만원 선이 될 것임

[표 3-6] 유형별 소득 기준 차이

목표 기준	생활임금(전북 기준)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빈곤기준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빈곤기준
지원 수준	25.7만원	61.8만원	78.3만원	30만원	66.1만원	82.6만원

2) 지원 인원

- 전라북도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을 좁힐 수 밖에 없음
- 전라북도 청년 인구는 43.7만명이며, 상대적 빈곤율을 활용하여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 50~100% 사이의 청년은 15.3만명일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는 8.7만명, 50% 이하는 6.4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표 3-7] 중위소득 비율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전체	14.70%	19.90%
근로연령인구	9.00%	13.40%

출처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이와 같은 계산 결과는 미취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인구이기 때문에 취업 혹은 창업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시 계산 할 필요가 있음
- 그 결과, 중위소득 50~100% 구간에 존재하는 경제활동 청년은 11.3만명이며, 중위소득 60% 이하는 3.7만명, 50% 이하는 2.5만명인 것으로 계산됨

[표 3-8] 유형별 소득 기준 차이를 지원할 경우의 예산 규모

(단위 : 명, 억원)

정책 대상	인원	생활임금(전북 기준)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	빈곤기준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	빈곤기준
전체 인구	437,991	13,508	32,481	41,154	15,768	34,741	43,414
중위소득 50~100%	153,297	4,728	11,368	14,404	5,519	12,160	15,195
위 대상의 1%	1,533	47	114	144	55	122	152
중위소득 60% 이하	87,160	2,688	6,464	8,190	3,138	6,914	8,639
위 대상의 5%	4,358	134	323	409	157	346	432
중위소득 50% 이하	64,385	1,986	4,775	6,050	2,318	5,107	6,382
위 대상의 5%	3,219	99	239	302	116	255	319
경제활동인구	275,000	8,481	20,394	25,839	9,900	21,813	27,258
중위소득 50~100%	112,750	3,477	8,362	10,594	4,059	8,943	11,176
위 대상의 1%	1,128	35	84	106	41	89	112
중위소득 60% 이하	36,850	1,136	2,733	3,462	1,327	2,923	3,653
위 대상의 5%	1,843	57	137	173	66	146	183
중위소득 50% 이하	24,750	763	1,835	2,326	891	1,963	2,453
위 대상의 5%	1,238	38	92	116	45	98	123

-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50~100% 구간에 있는 청년의 1%는 1,128명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30억~12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4

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대상 발굴

Jeonbuk Institute

제1절 청년 유형별 선정 검토
제2절 지원 대상 유형 구분

제4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대상 발굴

제1절 청년 유형별 선정 검토

1. 전라북도 주력 산업 육성 차원

1) 농촌 청년

■ 전라북도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 전망

- 2000년대 농업부가가치는 정체 수준이지만, 2000년대 후반은 고부가 성장 품목(축산, 원예) 확대에 의해 부가가치가 일정 정도 성장
 - (전국) ('00~'05) 0.3% → ('05~'10) 1.6% → ('10~'13) 2.5%
 - (전북) ('00~'05) 0.9% → ('05~'10) 1.9% → ('10~'13) 4.5%

[표 4-1] 전라북도 농림어업 부가가치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연평균증감율		
	액	순위	액	순위	액	순위	액	순위	'05	'10	'10~'13
전국	25,711,988		26,151,245		28,312,873		30,521,185		0.34	1.60	2.54
경기	3,061,574	4	3,118,919	4	2,829,180	6	3,092,440	6	0.37	-1.93	3.01
강원	1,270,759	8	1,382,870	8	1,669,310	8	1,741,026	9	1.71	3.84	1.41
충북	1,717,889	7	1,575,511	7	1,651,789	9	1,834,862	7	-1.72	0.95	3.57
충남	3,468,975	3	3,432,040	3	3,660,177	3	3,988,264	3	-0.21	1.30	2.90
전북	2,614,353	6	2,734,031	6	3,004,030	5	3,423,298	4	0.90	1.90	4.45
전남	3,981,908	1	3,849,020	2	4,270,709	2	4,572,333	2	-0.68	2.10	2.30
경북	3,573,088	2	3,916,907	1	4,422,498	1	4,950,322	1	1.85	2.46	3.83
경남	2,641,463	5	3,026,991	5	3,248,503	4	3,290,080	5	2.76	1.42	0.42
제주	1,096,567	9	1,371,266	9	1,675,966	7	1,807,453	8	4.57	4.09	2.55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

- 전라북도는 농생명 기반으로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농생명혁신도시는 현재 공공 농생명 R&D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향후 농생명 R&D를 기반으로 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R&D성과의 수준을 높이고, 이런 R&D결과로 농생명산업의 첨단 창업 및 창농으로 확산

-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수출수요에 대응하는 스마트 팜을 구축하여 친환경 첨단 수출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향후 규모를 확장하고, 수출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글로벌 식품산업으로 육성
- 미생물클러스터는 미생물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추가적인 연구기반이 필요한 만큼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고자 함
- 종자·농기계클러스터는 국내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육성하고 세계 농업의 성장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산업 발전을 추진

[표 4-2] 전라북도 5대 클러스터 현재, 목표, 추진방향

클러스터	현재	목표	추진방향
농생명 혁신도시	공공 농생명 R&D 기관 집적	농생명 R&D 네트워크 활성화 농생명 창업, 창농도시	R&D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생명용지 기반 조성	친환경 첨단 수출형 생산 거점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수출수요지향 스마트팜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 완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기업 입주시작	건강기능성식품, 고령친화식품, 식품안전 기반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규모화 수출지향 육성
미생물클러스터	미생물연구기반조성	미생물 R&D 사업화 기반 미생물산업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반 마련 미생물 산업화
종자·농기계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완공 농기계클러스터 구축	농생명산업 경쟁력제고, 첨단종장·농기계 산업 구축	민간육종단지 규모 확대 농기계산업 첨단화

출처 : 전북도청(2018),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방안 연구용역

- 농생명 분야 산업이 점점 고부가가치화가 되면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청년들의 유입이 쉽지 않고 기존 농촌 청년들의 도시로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 가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가 기대

- 전국 귀농 귀촌 가구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015가구 증가함
-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12가구가 감소한 16,935가구가 귀농 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대비하여 5.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귀농귀촌 가구 현황

구 분		합계		귀농		귀촌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가구수 (세대)	2016	335,383	16,935	12,875	1,263	322,508	15,672
	2015	329,368	17,347	11,959	1,164	317,409	16,183
	증감세대	6,015	-412	916	99	5,099	-511
	증감율	1.8%	-2.4%	7.7%	8.5%	1.6%	-3.2%
가구원 (명)	2016	496,048	22,862	20,559	2,024	475,489	20,838
	2015	486,638	24,094	19,860	2,039	466,778	22,055
	증감세대	9,410	-1,232	699	-15	8,711	-1,217
	증감율	1.9%	-5.1%	3.5%	-0.7%	1.9%	-5.5%

출처 : 전북도청 보도자료(2017), "전북도 2016년 귀농귀촌 실적 발표"

-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 17,664 가구가 귀농귀촌하여 최대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4] 전라북도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추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구수	611	1,247	2,228	15,544	17,664	17,347	16,935

출처 : 전북도청 보도자료(2017), "전북도 2016년 귀농귀촌 실적 발표"

- 전라북도 귀농귀촌 가구주 연령대별 점유율을 보면 30대 이하가 36.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50대 22.3%, 40대 20.2%, 60대 13.1%, 70대 8.3% 순인 것으로 조사됨
- 즉, 귀농귀촌 가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56.3%로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5] 귀농귀촌 가구주 연령별 현황

구 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전국 (세대)	합계	335,383	147,333	67,496	64,065	35,471	21,018
	귀농	12,875	1,340	2,361	5,137	3,270	767
	귀촌	322,508	143,993	65,135	58,928	32,201	20,251
	점유율	100%	43.9%	20.1%	19.1%	10.6%	6.3%
전북 (세대)	합계	16,935	6,103	3,425	3,779	2,214	1,414
	귀농	1,263	162	280	465	295	61
	귀촌	15,672	5,941	3,145	3,314	1,919	1,353
	점유율	100%	36.1%	20.2%	22.3%	13.1%	8.3%

출처 : 전북도청 보도자료(2017), “전북도 2016년 귀농귀촌 실적 발표”

- 이와 같이 농촌으로의 귀농 귀촌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수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문제로 인해 귀농 귀촌을 포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귀농, 귀촌 청년이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소득 보완 측면에서 지원해야 함

2) 문화예술 종사 청년

■ 전라북도 문화예술인력 공급 감소 추세

- 전북의 대학(교) 예술계 학과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2011년 3,223명에서 2017년 2,490명으로 6년 만에 정원이 733명이나 감소함
 - 계열별로 살펴보면 응용예술 계열의 정원이 2017년 678명으로, 2011년 1,133명 대비 67%나 줄어듦

[표 4-6] 전북의 대학(교) 예술계열별 학과 정원

(단위 : 명, %)

구분	디자인	무용	미술· 조형	연극· 영화	음악	응용예술	합계
2011	789	44	210	155	892	1,133	3,223
2012	806	44	197	240	879	974	3,140
2013	886	60	192	140	907	924	3,109
2014	898	40	187	135	870	910	3,040
2015	824	39	160	257	870	855	3,005
2016	804	37	147	247	796	698	2,729
2017	600	37	134	240	801	678	2,490
2011년 대비 정원 증감률	0.30	-31.50	-18.92	-56.72	35.42	-11.36	-67.1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2011~2017)

■ 자생적인 청년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²⁰⁾

- 전라북도 청년 문화예술활동 중에서 음악활동(대중음악과 퓨전국악) 기반 커뮤니티 형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7개 대중음악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현재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음악관련 팀은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등에서 만들어지는 하지만, 활동은 대다수 전주권에서 활동하고 있음
 - 장기간 활동한 단체는 거의 학원 운영을 병행하거나 학원 강사로 수익을 창출하며, 신생단체들도 기존의 뮤지션 중심으로 다시 생성되고 해체된 경우가 많고, 최근 사설학원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음
 - 젊은 뮤지션 중심으로 음악 생산자 협동조합결성의 움직임이 있으며, 10대~20대 중심으로 힙합, 랩, 비보잉 등의 활동도 늘어나 지역 연계 활동은 아직 미약함
- 퓨전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국악단체는 17개가 활동하고 있음
 - 청년국악인들은 관현악, 실내악, 창극, 퓨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대발표작품에 집중하고 있어 앨범발매 등의 마케팅활동을 하는 단체는 적음

20) 김시백(2016),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연구, 전북연구원

[표 4-7] 전라북도 내 청년 대중음악 커뮤니티

팀명	주요장르	활동기간
스타피쉬(StarFish)	남성5인조 락밴드	10년
이스트 기네스	10인조 힙합크루	10년
뮤즈그레인(MuzGrain)	혼성5인조 클래식팝밴드	9년
ATLAT순수	혼성4인조 락밴드	8년
크림(Cryim)	혼성3인조 팝밴드	9년
나인이어스(Nine Ears)	남성4인조 힙합/락	6-7년
휴먼스(Humans)	혼성4인조 락밴드	6년
이상한계절	남성2인조 포크듀오	4년
바람처럼	남성4인조 재즈밴드	3년
커브사이드 클랜(Curbside Clan)	8인조 힙합크루	3년
57	혼성2인조 락밴드	2년
워킹 애프터유(Walking After U)	여성3인조 락밴드	2년
황대귀 트리오	남성3인조 재즈트리오	1년
화요일11시	남성4인조 팝밴드	1년
노니파이(Noni-Fi)	혼성3인조 락밴드	1-2년
음담악설	남성4인조 어쿠스틱밴드	1-2년
김지은 밴드	혼성4인조 재즈팀	1-2년

출처 : 김시백(2016),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연구, 전북연구원

[표 4-8] 전라북도 내 청년 퓨전국악 커뮤니티

팀명	악기구성	활동기간
퓨전실내악단'소리에'	첼로, 드럼, 바이올린, 타악기, 피리, 대금, 소금 등	5년
국악실내악단'소리나무'	피리, 대금, 타악2, 신디, 보컬	10년
국악실내악단'버리'	첼로, 드럼, 바이올린, 타악기, 피리, 대금, 소금 등	5년
국악실내악단'지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타악, 신디	2년
양상블'어쿠스틱'	피리, 해금, 가야금, 타악2, 신디, 소금.	3-4년
창작국악그룹'단단미연'	기타, 플룻, 신디, 타악2, 콘트라 베이스	1년
인터랙티브 아트컴퍼니'아띠'	재즈댄스, 현대무용, 작가, 판소리, 대금, 타악, 피리	4년
국악실내악단'아름양상블'	거문고, 가야금, 타악2, 대금, 피리, 첼로, 신디,	3년
국악실내악단'흐름'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 보컬	2년
국악실내악단'나르샤'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 보컬, 거문고	7년
국악실내악단'초화'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타악, 건반, 보컬,	3년
타악연희원'아귀'	타악, 기타, 보컬	8-9년
국악실내악단'아띠'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 보컬, 거문고	2년
이희정밴드	소리, 기타, 베이스, 신디, 드럼	1-2년
문화포럼'나니레'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 보컬, 거문고	25년
JU창극발전소	창극단, 국악반주단 포함	2년
이창선대금스타일	대금, 기타, 베이스, 드럼	7년

출처 : 김시백(2016),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연구, 전북연구원

3)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청년

■ 중앙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를 추진
 - 2017년 하반기에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사회적 경제 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제도 기반 마련
 - 20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 20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소인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의 핵심 축인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역할을 수행
-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총 1,258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사회적기업은 180개, 마을기업 104개, 협동조합 864개, 자활기업 110개가 존재함
- 전라북도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으며,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그 결과,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활동 조직이 1,064개로 2만 6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이들 사회적경제 활동조직들의 활동영역은 사회복지,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음

[표 4-9]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지역	합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계	인증	예비			
전북	1,258	180	119	61	104	864	110
전주	417	68	49	19	5	326	18
군산	128	18	11	7	5	94	11
익산	172	24	10	14	9	118	21
정읍	85	12	9	3	16	52	5
남원	76	11	6	5	6	50	9
김제	47	6	6	0	8	28	5
완주	118	8	4	4	12	95	3
진안	33	4	4	0	6	19	4
무주	35	3	1	2	7	19	6
장수	19	4	2	2	5	9	1
임실	33	3	2	1	8	14	8
순창	32	8	6	2	7	9	8
고창	34	7	7	0	6	13	8
부안	29	4	2	2	4	18	3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7),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재 전문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홍보 부족으로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
- 따라서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충 성격의 활동 수당 지원이 필요함

2. 청년 취약 계층 지원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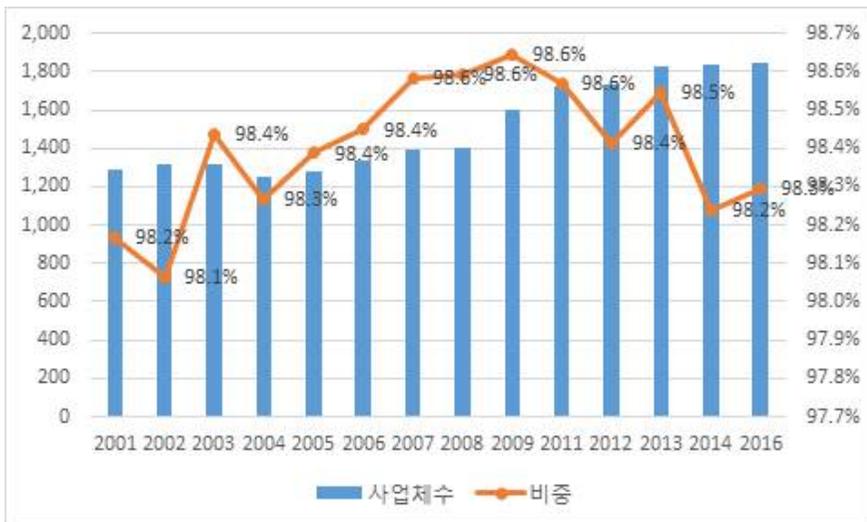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1) 전라북도 중소기업 현황

■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경제의 중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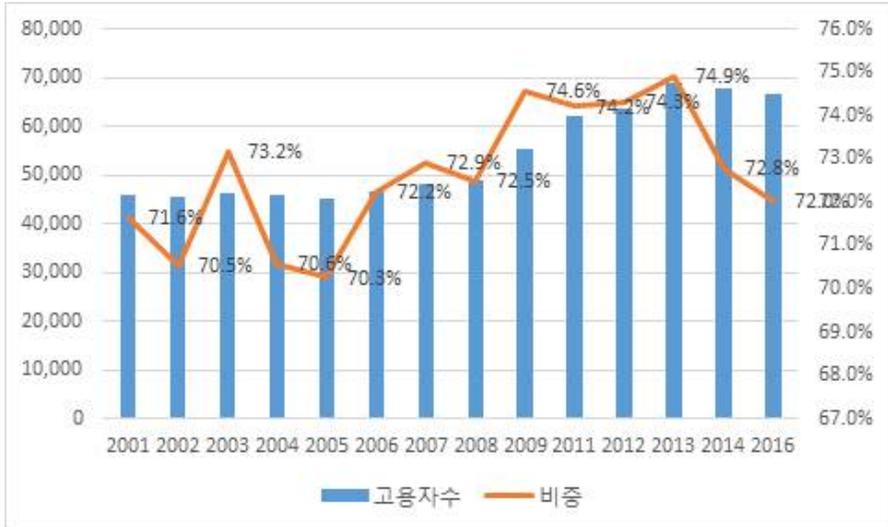
○ 2016년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사업체수는 1,844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8.2% (전국 98.9%)이며, 고용은 66,741명으로 전체 고용의 72.0%(전국 74.6%)를 차지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559개사 늘어났고 고용은 20,816명으로 연평균 각각 2.43%, 2.52% 증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그림 4-1] 전라북도 중소기업 사업체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그림 4-2] 전라북도 중소기업 고용자 수 추이

■ 중소기업의 생산성 약화

- 1인당 부가가치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볼 경우, 대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억 8,305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1억 2,590만원으로 68.8% 수준에 불과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기준)

[그림 4-3] 전라북도 기업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 2016년 중소기업 1인당 임금수준은 3,377만원으로 대기업의 5,414만원의 62.4%에 불과함

-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1인당 임금수준은 2001년 1,486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수준의 격차가 2001년 950만 원에서 2016년 2,037만원으로 확대되어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중사자 10인 이상 기준)

[그림 4-4] 전라북도 기업규모별 1인당 연간급여액(백만원)

(2)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중 59.4%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권에서는 53.1%에 불과하여 타 지역에 비해 낮음

[표 4-10] 지역별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의사 비율

(단위 : %)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강원	광주 전라 제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9.4	66.7	60.8	53.9	53.1	55.3	60.1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호남권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고용 불안정과 낮은 급여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표 4-11] 지역별 청년층 중소기업 비취업 사유

(단위 : %)

	고용 불안정	낮은 급여 수준	낮은 복지 수준	낮은 발전가능성	낮은 성취감	낮은 인지도	경험 부재	대기업 이직 불가능
전국	20.6	19.8	13.9	13.3	11.5	8.4	8.0	2.8
호남권	28.5	24.0	12.3	11.0	5.7	7.5	9.9	0.7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사회복지 종사 청년

■ 미래 일자리 수요 급증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확충 필요

- 2020년 전라북도의 산업별 일자리 수요를 전망한 결과, 약 17만개의 신규 일자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분야가 신규 일자리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성장 측면에서는 수요 증가 요인이 없지만, 향후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유아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대인 서비스 중에서 가장 힘든 분야에 속하면서 임금 수준도 낮기 때문에 청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예전에 비해 더 이상 크게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4-12] 2020년 전라북도 산업별 일자리 수요 전망

산업 구분		총 수요	국가 성장 수요	지역 성장 수요
성장산업	농업	365	25	340
	식료품 제조업	16,048	4,512	11,536
	화학제품 제조업	5,048	924	4,12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87	178	5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127	6,111	8,017
	숙박 및 음식점업	25,183	4,283	20,900
	교육 서비스업	31,670	21,389	10,281
경쟁산업	1차 금속 제조업	1,989	-319	2,308
	전기장비 제조업	534	-557	1,09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39	-617	1,4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5	-689	1,6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270	-78	348
경쟁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87,259	116,472	-29,213
정체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165	-947	783
	의료, 정밀기기 제조업	-118	-131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290	-11,752	46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225	-18,320	18,545

■ 낮은 임금 수준

- 사회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순수 인건비는 3,601만원, 여기에 복지부 가이드라인 비교를 위해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을 제외한 1인당 인건비는 2,890만원 수준

-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은 2,890만원으로 추정되지
만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받고 있는 평균 급여는 최소 2393~2434만원으
로 개인당 456만원 정도 편차 발생

[표 4-13] 사회복지사 임금 기준

시설유형	A			B	A/B
	직위	평균호봉	연간평균보수액	복지부 기준 급여	복지부 대비
이용시설	관장	10	33,205	40,775	81.4
	부장	12	33,349	39,191	85.1
	과장	12	27,246	35,534	76.7
	팀장	9	26,664	30,175	88.4
	사회복지사	6	24,453	24,974	97.9
	전체 평균	8	26,890	29,458	91.3
생활시설	원장	20	43,149	50,411	85.6
	사무국장	13	32,332	40,194	80.4
	과장/생활복지사	10	27,908	33,383	83.6
	생활지도원	8	24,832	26,453	93.9
	전체 평균	10	27,263	30,373	89.8

출처 : 이중섭(2015),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3) 실업팀 소속 운동 청년

- 전라북도의 경우 축구, 배구, 농구 등의 지역 연고 스포츠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축구의 경우 꾸준한 관중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스포츠팀들은 프로의 범주에 들어가 지역 차원에서 지원하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레슬링, 양궁, 핸드볼 등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실업팀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전국의 실업팀²¹⁾은 2017년 기준으로 2,414팀이 있으며,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는 총 31,755명으로 이 중 전라북도에 소재한 팀은 113개이며, 1,526명

21) 실업팀은 종별로는 초·중·고·대학부와 일반부로 구분되며, 소속에 따라 운동부 및 클럽과 동호회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실업팀은 일반부 중에서 동호회와 클럽, 체육관 등을 뺀 팀만 구분한 것임

※ 체육관 : 통상적인 도장

※ 클럽 : 코치가 소수의 선수를 개인지도하는 팀

※ 동호회 : 운동부, 클럽, 체육관 등이 아닌 동호회 성격으로 운영하는 팀

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인구 만 명당 비율을 따져보면, 광역시보다는 도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프로 구단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실업팀의 입장에서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인구 만 명당 선수 비율이 8.2로 도 지역 중에서는 충북과 전남 다음으로 높은 편에 속함

[표 4-14] 시도별 실업팀 현황(2017년 기준)

구분	전체			공공기관 및 기업 창단		
	실업팀	실업선수	만명당 선수	실업팀	실업선수	만명당 선수
서울	218	2,961	3.0	89	710	0.7
부산	97	918	2.6	66	452	1.3
대구	93	954	3.9	47	357	1.4
인천	110	1,452	4.9	60	501	1.7
광주	59	718	4.9	41	270	1.8
대전	83	792	5.3	49	245	1.6
울산	65	669	5.7	37	233	2.0
세종	34	307	11.1	20	145	5.2
경기	616	8,699	6.8	248	1,644	1.3
강원	127	1,967	12.7	62	351	2.3
충북	114	1,427	9.0	67	524	3.3
충남	116	1,688	8.0	56	379	1.8
전북	113	1,526	8.2	57	322	1.7
전남	122	1,668	8.8	57	382	2.0
경북	172	2,116	7.9	79	546	2.0
경남	183	2,752	8.1	58	430	1.3
제주	48	512	7.8	24	115	1.8
기타	44	629		13	183	
전국	2,414	31,755	6.1	1,130	7,789	1.5

출처 : 스포츠 지원포털(www.sportsg1.or.kr/stat)

주: 실업팀은 종별 일반부 중에서 소속이 동호회와 클럽, 체육관 등들 뿐 운동부로 구성된 팀만 구분

- 하지만, 시도청 및 시도체육회 및 군 경찰 등 공공 행정 조직 산하의 실업팀을 제외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창단한 실업팀 현황을 보면, 인구 만 명당 선수 비율이 1.7명으로 타 도 지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함

- 즉, 전라북도 소재 실업팀의 경우 대부분 공공 행정 조직 주도의 실업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 주도의 실업팀 운영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라북도 소재 종목별 실업팀 현황을 보면 실업선수 규모 측면에서 상위 10개 종목은 궁도, 축구, 승마, 사격, 수영, 태권도, 육상, 하키, 검도, 당구임
- 하지만 전국 대비 비중으로 상대적으로 운영 규모가 작다고 평가되는 종목은 사격, 태권도 및 당구로 전국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5] 전라북도 실업선수규모 상위10 종목 현황(2017년 기준)

구분	전라북도		전국		비중 (LQ)
	실업팀	실업선수	실업팀	실업선수	
궁도	21	626	386	10,483	1.24
축구	16	395	372	9,456	0.70
승마	2	50	27	554	2.16
사격	2	49	63	1,548	0.35
수영	3	34	61	405	2.65
태권도	10	30	282	1,031	0.35
육상	4	22	99	632	1.20
하키	1	22	12	224	2.82
검도	2	21	41	265	0.81
당구	2	21	49	917	0.29

출처 : 스포츠 지원포털(www.sportsg1.or.kr/stat)

주: 실업팀은 종별 일반부 중에서 소속이 동호회와 클럽, 체육관 등을 뺀 운동부로 구성된 팀만 구분

- 이 외 극소수의 실업선수가 활동하는 10개 종목은 테니스, 볼링, 요트, 철인3종, 롤러, 세팍타크로, 핀수영, 카누, 탁구, 근대 5종으로 이 중 요트, 세팍타크로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 운영 현황을 보이고 있음

[표 4-16] 전라북도 실업선수규모 하위 10 종목 현황(2017년 기준)

구분	전라북도		전국		비중 (LQ)
	실업팀	실업선수	실업팀	실업선수	
테니스	1	7	36	146	0.66
볼링	1	6	43	212	0.59
요트	2	6	21	78	2.72
철인3종	2	6	22	102	0.76
롤러	2	5	25	108	0.79
세팍타크로	1	5	16	80	1.35
수중_판수영	1	5	22	103	0.78
카누	1	5	25	105	0.98
탁구	1	5	30	165	0.64
근대5종	1	1	18	71	0.46

출처 : 스포츠 지원포털(www.sportsg1.or.kr/stat)

주: 실업팀은 종별 일반부 중에서 소속이 동호회와 클럽, 체육관 등등 뿐 운동부로 구성된 팀만 구분

4) 타지역 출신 청년

■ 적극적인 청년 유입 정책으로서 타지역 출신 청년 지원 필요

- 2017년 기준으로 청년층의 인구 순유출입 규모는 -8,655명으로 외부에서 전라북도로 유입된 인구보다 유출된 인구가 8,655명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 2017년에 전라북도로 유입된 청년층 규모는 86,014명으로 교육 및 직업을 주 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인구 이동율이 높아 이들 청년층의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으로서 타지역 출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지역 기반이 부족한 타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생활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표 4-17] 연령별 인구이동율

구분	이동자수	주민등록수	이동율
전체	7,154,226	51,230,704	13.96%
10대 이하	1,307,041	9,878,329	13.23%
20대	1,443,733	6,751,231.5	21.38%
30대	1,550,851	7,388,644	20.99%
40대	1,111,169	8,640,493	12.86%
50대	892,574	8,329,802	10.72%
60대 이상	848,858	10,242,206	8.29%

출처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가공

■ 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 정착 기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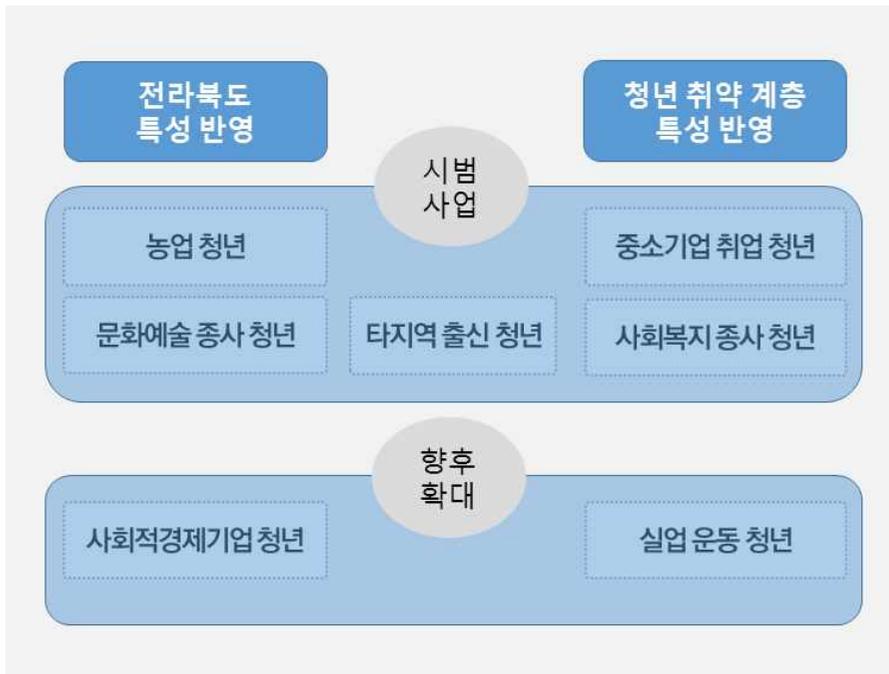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공급 측면에서의 지식 또는 정보 확산 효과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외에도 수요 측면에서의 지출효과도 무시할 수 없음
- 먼저 수요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지출효과는 대학이 운영을 위해 행하는 여러 종류의 소비 활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크게 대학의 재정 지출과 구성원들의 소비 활동으로 나눌 수 있음
 - 대학은 운영을 위해 교직원을 채용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며,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 다양한 교재 및 연구 기자재 등을 구입하며, 그 외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여러 종류의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함
 - 또한 대학 내 시설물을 유지 관리 혹은 신축하기 위해 건설 분야에 대한 지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학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역 내 출신 뿐만 아니라 타지역 출신의 유입으로 인해 신규 소비 지출이 발생함
- 수요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지출 효과는 대학 구성원의 소비 활동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순환할 경우에 지역 경제에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함

- 수요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지출 효과(유발 소득 효과)는 신규로 유입된 인구를 통해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주며, 교직원들의 소득 향상은 소득세와 재산세 납부로 이어져 지역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또한 대학 졸업생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지역에 상주할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역시 지역 재정에 영향을 줌
- 외국의 경우 외국 유학생들의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로 지역 내 취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전북대학교의 경우 2016년 기준 신입생의 48.0%가 타 지역 출신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이 대학 졸업 이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제2절 지원 대상 유형 구분

1. 유형 선정 개요

- 앞서 검토한 청년 유형별 지원 필요성 결과, 청년활동수당 은 전라북도의 산업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여 산업 진흥을 꾀할 수 있는 3가지 유형과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청년 계층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총 7가지 유형의 청년 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림 4-5] 전북 청년활동수당 대상 유형

- 7가지 유형의 청년 계층 중에서 5가지 유형의 청년 계층에 대한 수당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사업의 효과 검증 및 홍보를 통한 수요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4-18] 전북청년활동수당 대상 유형

대상 유형	주요 대상 및 선정 근거	활동 유형	우선 순위
농업 청년(귀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청년의 25%가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주요 불만 사항으로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제약을 꼽음 - 귀농청년 지원에 대한 차별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 식비 - 농업 관련 재료 구입 	1
문화예술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연령대에 비해 최저생계비 수준의 삶의 질 영위 - 창작 활동 기반 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 식비 - 문화예술활동비 	1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3번째로 큰 사회적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의 청년 수요 확대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 식비 	2
중소기업 취업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및 고용불안 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완료 이후 이직률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 식비 - 교통비 	1
사회복지 봉사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관련 수요는 늘어나지만, 청년들의 직종 접근성이 떨어짐 - 근로 및 임금 수준으로는 문화/여가 활동을 여가하기에 부족한 소득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 식비 - 교통비 	1
비인기 운동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기 종목 실업팀 소속 운동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 식비 - 교통비 	3
타지역 출신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단위 지역에서 타지역 출신 비율이 높은 편(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중심) - 대학 졸업 이후 전라북도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 식비 - 주거비 	3

2. 유형별 지원 대상 설정

1) 농업청년

■ 농업청년의 범위 설정

- 현재 농림부에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의 주요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 경우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 귀촌 청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농촌 지역에서 농업 및 영농 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

[표 4-19] 귀농귀촌인 정의

구분	정 의	행정자료(각 6종)
귀농인	- 대상 기간(T-1년 11.1. ~ T년 10.31.) 동안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 농업 경영체, 축산업 등록명부, 농지 원부에 등록된 자	- 주민등록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명부, 농 지원부, 축산업 등록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귀촌인	- 1년 이상 동에서 거주한 사람이 대상기간(T-1년 11.1. ~ T년 10.31.) 동안 읍면으로 이동한 경우. 단,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일시적 이주, 귀농인귀어인 및 그 동반가구원 등은 제외	- 주민등록자료, 대학생 학적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군인사병명부, 고용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신재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 하지만 단순히 귀촌 청년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거주지만 농촌 지역이고 실제 사회 활동은 타 지역에서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귀촌 통계는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해당되도록 귀촌인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농촌 활동과 무관한 경우가 많음
 - 실제로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경우 이서면을 포함하고 있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귀촌인에 포함하고 있음

■ 지원 대상

- 최소 1년 이상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대비 50~150% 사이인 청년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자·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축산업, 어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농업, 축산업, 어업 대상)

■ 제외 대상

- 직계존속의 시설을 임차하여 영농기반을 마련하였지만,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청년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
 - 유사한 목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수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 대상에 제외

■ 대상 규모

- 2017년 기준 전라북도 농가인구 중 청년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18,49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중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거주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 이 중 농업 종사 기간이 있는 인구는 6,238명이며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은 3,360명인 것으로 조사됨
- 청년활동수당의 농업 청년 대상은 농업 활동을 최소 1년 이상을 한 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360명보다는 작은 규모일 것임

[표 4-20] 2017년 전라북도 농가인구(청년층)

	농가인구 합계	남성	여성
20~24세	4,336	2,031	2,305
25~29세	5,099	2,513	2,586
30~34세	4,698	2,742	1,956
35~39세	4,366	2,147	2,219
합계	18,499	9,433	9,066

출처 : 농림어업조사(2017)

[표 4-21] 2017년 전라북도 농업종사기간별 농가인구(청년층)

	농가인구 합계	농업종사기간 있음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20~29세	9,436	1,628	963	665
30~99세	9,063	4,610	1,915	2,695
합계	18,499	6,238	2,878	3,360

출처 : 농림어업조사(2017)

[표 4-22] 2015년 전라북도 농업 종사 가구원

	합계	전업	겸업
20~24세	769	255	514
25~29세	1,395	522	873
30~34세	2,177	889	1,288
35~39세	3,560	1,363	2,197
합계	7,901	3,029	4,872

출처 : 농림어업총조사(2015)

- 1년 이상 농업 활동을 한 청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15년에 조사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서 전업 농업 인구 비율(38.3%)을 2017년 기준 전라북도 내 농업종사기간이 있는 청년 규모에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2,391명임
 -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농업 종사 인구를 전업과 겸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전업일 경우 1년 이상 농업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청년활동수당의 농업 청년 대상은 2,391명~3,360명일 것으로 추정됨

2) 문화예술 종사 청년

■ 지원 대상

- 전라북도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대비 50~150% 사이인 청년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의 정의²²⁾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청년
- 지원 가능 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 제외 대상

-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출연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 소속 문화예술 청년
 - 지자체로부터 임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받고 있는 청년

■ 대상 규모

- 문화예술 종사 대상 청년활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문화예술증명을 받은 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증명 청년 수를 추정해야 함
-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문화예술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은 46,659명으로 이 중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증명인은 971명인 것으로 조사됨

22)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표 4-23] 지역별 문화예술증명인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5	10,055	658	423	862	426	415	87	13	5,312
2016	16,412	2,059	879	1,434	577	679	269	34	8,583
2017	21,406	2,994	1,139	1,920	742	901	581	82	11,146
비율(%)	45.93	6.43	2.45	4.11	1.61	1.94	1.08	0.17	23.9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5	339	234	190	466	271	208	427	140	20,526
2016	540	377	367	665	411	391	836	218	34,731
2017	705	499	500	971	528	543	1,696	306	46,659
비율(%)	1.51	1.07	1.06	2.07	1.13	1.16	3.61	0.65	100

출처 : 문화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2017년 12월말 기준

- 이 중 청년층에 해당되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 기준 문화예술증명인의 연령별 비율을 적용함

[표 4-24] 연령별 문화예술증명인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2015	3,493	8,584	4,497	2,307	1,067	486	92	20,526
2016	6,911	13,985	7,016	3,705	1,947	979	188	34,731
2017	9,189	18,933	9,000	5,127	2,754	1,350	306	46,659
비율(%)	19.62	40.71	19.32	10.91	5.86	2.89	0.66	100

출처 : 문화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2017년 12월말 기준

-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문화예술증명인 중 청년층은 전체 문화예술증명인 46,659명의 60.3%인 28,122명인 것으로 조사됨
- 이 비율을 전라북도에 적용할 경우 전라북도 소재 문화예술증명 청년은 586명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문화예술 종사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의 수요는 586명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대상

- 해당 기업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대비 50~150% 사이인 청년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중소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지정받는 기업으로 한정

[표 4-25] 평균매출액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 지원 규모

○ 2016년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고용자 수는 465,255명²³⁾으로 제조업 96,5570명, 서비스업 324,228명, 건설업 44,457명으로 분류할 수 있음

23)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중소기업 고용자 수로 업종별로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종사자 수 규모를 300인 이하인 사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하여 추정함

[표 4-26] 전라북도 업종별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체 수	11,743	106,476	5,630
종사자 수	96,570	324,228	44,457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2016), 통계청

- 이들 중 청년층만 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함
- 제조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의 33.6%가 청년층이며, 서비스업은 42.6%, 건설업은 31.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비율이 전라북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함

[표 4-27] 중소기업 업종별 청년층 종사 비율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20대	9.3	14.3	6.6
30대	24.3	28.3	24.6
전체	33.6	42.6	31.2

출처 : 중소기업실태조사(2016), 중소벤처기업부

- 추정 결과, 전라북도내 있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총 184,43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제조업은 32,447명, 서비스업은 138,121명, 건설업은 13,870명일 것으로 추정됨

[표 4-28] 중소기업 청년 종사자 수 추정결과

합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184,438	32,447	138,121	13,870

4) 사회복지 종사 청년

■ 지원 대상

- 해당 기업 혹은 기관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대비 50~150% 사이인 청년
- 사회복지시설로 승인받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 제외 대상

- 복지부 혹은 지자체 기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 지원 규모

- 사회복지 종사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 지급 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청년 수를 추정해야 함

[표 4-29] 전라북도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현황

구분	종사자 수	사회 복지사	보육교 사	요양 보호사	특수교 사	재활 치료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타
거주 복지시설	6,905	1,667	65	3,045	5	20	102	2,001
비거주 복지시설	25,435	3,040	9,391	5,304	180	1,104	105	6,311
합계	32,340	4,707	9,456	8,349	185	1,124	207	8,312

출처 : 서비스업조사(2016), 통계청

- 2016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 32,340명임

[표 4-30] 전라북도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구분	전체	생활 시설 계	생활시설						이용 시설 총계	이용시설		
			아동 양육 치료 자립 시설	장애인 단기 가주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모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 시설	사회 복귀 시설	노숙인 자활 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시설수	149	58	16	2	14	7	17	2	91	20	70	1
종사자수	1,103	496	306	8	16	34	124	8	607	99	499	9

출처 : 이중섭(2015),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이 중에서 전라북도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 1,103명인 것으로 조사됨
-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시군 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인건비 기준 보수 기준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기관 비율이 19.7%이고,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기관 비율이 69.1%이며, 나머지는 자체 기준이거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할 경우, 3,622명이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이 중에서 청년층에 해당되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전국 기준의 연령별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을 적용함

[표 4-31] 전국 연령별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현황

구분	종사자수	29세 이하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거주 복지시설	150,951	10,373	50,088	82,745	7,745
비거주 복지시설	526,586	75,184	286,093	141,160	24,149
합계	677,537	85,557	336,181	223,905	31,894

출처 : 보건복지관련산업일자리조사(2016), 보건복지부

- 20대 종사자의 비율은 통계자료를 통해 12.6%로 계산할 수 있는 반면, 30대

종사자의 비율은 통계자료에서 30대와 40대를 합쳐 제시된 관계로 20대와 50대 이상의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30대 종사자 수를 84,260명으로 추정함

- 이에 따라 청년층 종사자 비율은 25.1%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9,993명에 적용할 경우 909명의 청년들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5)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청년²⁴⁾

■ 지원 대상

- 전라북도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대비 50~150% 사이인 청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정의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는 기업 혹은 단체에 종사하는 청년
 - 전라북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는 자활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여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과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자활기업 종사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청년

24) 사회적경제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구분할 수 있어 앞선 중소기업 청년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범사업 이후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하고자 함

■ 자원 규모

- 2017년말 기준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1,177개임
 - 사회적기업은 173개로 인증 기업 118개, 예비 사회적기업 55개임
 - 마을기업은 102개, 협동조합은 792개, 자활기업은 110개임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²⁵⁾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종사자 수 비율을 전라북도에 적용하여 계산함
- 2016년 기준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14,948개이며, 고용인원은 91,10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각각의 유형별 기업과 종사자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32]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현황

구분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합계
기업 수	1,149	1,713	1,446	10,640	14,948
종사자 수	7,629	37,509	16,101	29,861	91,100
기업당 종사자 수	6.64	21.90	11.13	2.8	6.09

출처 : 일자리위원회(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기업당 종사자 수 비율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곱한 결과,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수는 7,872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이 중 청년층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취약계층²⁶⁾을 뺀 규모라고 가정함
-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종사자비율은 61.9%이

25)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대한 통계는 현재까지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통계청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정의된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 통계를 2018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며,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공식통계로 승인될 예정임

26)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는데, 취약계층은 ①저소득자 ②고령자 ③장애인 ④성매매피해자 ⑤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자 ⑥북한이탈주민 ⑦가정폭력피해자 ⑧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⑨결혼이민자 ⑩경쟁보호대상자 ⑪범죄구조피해자 ⑫그 밖의 취약계층으로 구성됨

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3,080명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6) 실업팀 소속 운동 선수

■ 지원 대상

-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지원포털에 선수 혹은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년으로 경기단체 및 기업 실업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년

■ 제외 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

■ 지원 규모

-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지원포털에 선수 혹은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전라북도 소재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총 1,655명임

[표 4-33] 전북 실업팀 선수 현황

구분	시도청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기업	공공기관	군	기타	미지정	합계
남성	58	22	103	9	22	38	706	418	1,376
여성	65	28	31	26	5	0	114	10	279
합계	123	50	134	35	27	38	820	428	1,655

출처 : 스포츠 지원포털(<http://g1.sports.or.kr/stat/>)

- 이 중 지자체 및 정부의 예산을 받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제외할 경우 실업 운동 청년 지원 대상 규모는 1,417명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5

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운영방안

Jeonbuk Institute

제1절 수당 지급 방식
제2절 수당 지급 절차
제3절 지속 운영 방안

제5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운영방안

제1절 수당 지급 방식

1. 지급 방식별 검토

1) 현금

- 청년 수당의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서울시, 인천시와 청년희망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는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구직활동 및 생활자금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 지급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인천시와 청년희망재단의 경우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으로 한정하여 사후 실비 정산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표 5-1] 청년수당 현금 지급 사례

구분	서울시	인천시	청년희망재단
명칭	청년수당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청년면접비용지원
지원목적	청년활동 촉진과 활성화 지원	취창업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적극적인 구직활동 독려
지원대상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청년	만 18~34세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지원금액	월 50만원, 6개월 현금	월 20만원, 3개월	6개월간 최대 60만원
사용범위	구직활동 및 개인활동 용도	직접적인 구직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구직시 소요되는 경비 (교통비, 숙박비, 사진비 등)
지원방식	현금 사전지원	사후실비 정산	사후실비 정산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 현금 지급 방식 중 사전 지원 방식은 청년들이 사용 범위 및 규모에 대한 자유도가 높으며, 개인에 따라 자신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현금 사용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 입장에서 청년 수당의 본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효율성은 낮음
- 이에 대한 보완으로 사후 실비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산 과정에서 청년들의 현금 사용 용도를 파악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의 돈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정산하는 시기까지 금전적인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정산 과정에서 허용 대상으로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지출 행태를 보일 수 있음

2) 지역상품권(성남사랑상품권)²⁷⁾

-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성남시로 전통시장과 영세 상점가를 살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 가액 액면금액의 6%(설·추석·평상시 동일)를 인센티브로 할인판매하여 성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특색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상품권 종류는 5,000원권과 10,000원권 2종류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구매가 가능함
 -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28개지점(시·구 농협출장소 및 일반농협)에서 판매함
 - 현금 및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매 가능함
 - 상품권 구입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휴대해야함
- 상품권 구매 한도는 개인과 단체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음
 - 개인 : 1일 10만원 , 월 50만원
 - 단체 : 월 100만원
 - 한도를 초과하여 구입은 가능하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없음.

27) 성남시청(www.seongnam.go.kr)

- 사용방법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상품권 액면금액의 80% 이상 사용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음
- 사용가능 시장 및 점포 (2018년 6월 19일 현재 가맹점 3,002개)
 - 성남시 : 2,973개
 - 강원 : 16개
 - 경기 : 7개
 - 경남 : 2개
 - 충남 : 4개

[표 5-2]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지역

전통시장	수정구	중앙시장, 현대시장, 중앙지하상가, 신흥시장, 수정로상권활성화구역
	중원구	성호시장, 단대전통시장, 하대원시장, 상대원시장, 모란민속5일장,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분당구	돌고래시장, 코끼리시장, 금호시장
소규모소매점		의류, 신발, 잡화, 문방구, 개인형 수퍼
소규모식품점		곡물,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제과류, 기타 식품소매점 등
음식점		
공영주차장		
택시		
시청연금매점		
시 산하 구내식당		

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 상품권의 경우, 사용 범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품권깡의 형식으로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의 도덕적 해이 부작용 우려
- 청년들이 배당받은 상품권을 현금화 하여 애초 목적인 ‘청년취업역량 강화와 지역상권 살리기’에 위배되며 그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상품권 거래행위에 대해 규제·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성남시도 2016년 2분기에는 전자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2018년 1분기)까지 상품권 지급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상품권의 사용처 및 교환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물품의 상품권 구매시 상인들이 28개의 농협중앙회로 직접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은행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지점이 더 많은 은행으로 교환처를 변경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음

3) 직불 카드

- 은행권과 협약을 맺어 직불카드 형식으로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와 부산시임

[표 5-3] 청년수당 직불카드 지급 사례

구분	서울시	경기도	대전	부산
명칭	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 디딤돌카드
지원 금액	매월 50만원씩 최소2개월~최대6개월 최대 300만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월 30만원 씩 최대 6개월 최대 180만원	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총 240만원
선정 인원	4,000명 내외	2,300명	5,000명	315명
발급 은행	우리	하나	하나	부산
시금고 여부	0	X (농협, 신한)	0	0
업무 협약	-	0	-	0
담당 기관	서울시청 서울혁신기획관	경기일자리재단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부산시청 비전추진단

출처 : 각 기관별 홈페이지

- 이 중 경기도와 부산은 각각 직불카드 발급 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직불카드 형식은 현금 방식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상품권과 같이 사용 대상을 한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공공 입장에서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청년들이 본 취지에 맞

계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직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업무 협약을 맺는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으며, 수탁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다만, 이 지급 방식의 경우 수탁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과 업무 협약을 맺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경기도 청년일자리 지원 협약서

경기도와 KEB 하나은행은 경기지역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청년취업 및 창업을 위해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약내용)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한다.

가. 경기도는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의 좋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나. KEB 하나은행은 청년 취업 및 창업사업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좋은 조건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한다.

제 3조 (신의성실)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사항이 있을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 4조 (협약의 효력, 변경 등)

본 협약서의 내용변경 및 협약서 해지에 대해서는 협력기관이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각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KEB 하나은행장
함영주

4) 복지포인트

- 현재 대전에서 '청년취업 희망카드'라는 이름으로 복지포인트 개념으로 카드를 미취업 청년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 방식은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에서는 대전시와 제휴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오프라인에서는 카드를 사용한 이후 매월 25일까지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심사 승인 이후에 포인트 차감 및 환급 절차가 이루어짐
- 일반 카드와의 차이점은 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은행 혹은 카드업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즉,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이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5) 유형별 장단점 검토

- 청년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효용성 측면에서 4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즉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 측면에서는 좋은 대안임
- 하지만,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리가 힘들고 정책 초반에 사용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사용이 가능하여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관리나 정산 과정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좋은 대안이 아님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이나 체크 카드를 도입하는데, 상품권의 경우 구입처 및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에게 불편하여 정책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사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어 편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수탁 은행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며, 카드 발급까

지 걸리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체크카드의 사용 범위를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정책 수요자의 사용 현황을 공공에서 체크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간 플랫폼 구축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위 4가지 대안 중에서 공공 입장에서 사후 정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면서 사용 대상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연계 체크카드가 적절한 방식임

[표 5-4] 청년수당 지급 방식별 장단점

구분	현금	상품권	체크카드	복지포인트
내용	- 지급 대상에서 사전, 사후 현금 지급	- 농협 등을 통해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 내에서 유통되도록 한정	- 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를 발행	- 체크카드와 유사한 형식이지만, 사후 승인 요청을 통해 결제 진행
장점	- 청년들이 자유롭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 제공 - 즉시 사용 가능(사전 지급)	-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수당의 본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지역 시장 및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주어진 예산 규모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수당의 본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음 - 청년의 신용과 상관없이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수탁은행의 지역경제 기여 가능	- 주어진 예산 규모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수당의 본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음 - 사후 승인 요청 과정을 통해 사용 내역과 규모 조절 가능 - 지원 기간동안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 가능
단점	- 사용 범위를 정하지 않을 경우,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 가능 -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 상품권의 현금화가 가능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 상품권의 구입이 어려워 청년들의 사용 제한	- 수탁은행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 및 기간 소요	- 수탁은행 뿐만 아니라 시스템운영업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이 필요 - 플랫폼 구축 비용 추가 소요

2. 수당 활용 가능 대상

-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은 이미 취업하여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

들의 사회 활동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타 시도와 다르게 구
직 활동을 위한 사용은 빠지고 사회 활동이나 개인 역량 강화 등의 목적을 위
한 지출을 활용 가능 대상으로 정함

- 활용 가능 대상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사행성
이 있거나 공공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외함
- 전체 금액을 전라북도에서 소비하도록 제한

[표 5-5] 청년활동수당 사용 가능 범위

구 분	항목별	지급범위	지급제외
건강 관리	스포츠 센터/ 스포츠 관련	- 스포츠/취트니스에서 운영하는 모든 항목 (헬스, 수영, 스쿼시, 탁구, 볼링, 골프 기타) - 종합시설이 아닌 단일 시설에서도 이용가능 (탁구장, 볼링장, 수영장 등) - 스포츠 관련물품 구입(스포츠 의류, 용품 등)	-
	안경/콘택트렌즈/보 청기	-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등	-
	병원/의료	-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 약 처방 등	-
자기 개발	온라인/일반서점	- 전문/일반서적, 소설, 취미 관련서적 등	게임, 등
	외국어교육수강	- 외국어 온오프라인교육 및 전화강의 등	-
	능력개발관련수강	- 요가, 미술, 꽃꽂이, 제빵 등 학원수강, 자격증시험응시수수료	-
	자격증강의	- 온라인 자격증 강의 수강 등	-
문화 레저	레포츠	- 래프팅,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기타	-
	영화/공연/전시	- 영화, 연극, 음악회, 공연, 전시회 등	-
	여행(국내/국외)	- 국내/해외여행(때키지 상품만 가능)	-
	음악감상	- 지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CD/DVD 및 음원다운로 드	게임 CD 등
	주말농장	- 주말농장, 과일수확 등	-
	테마파크	- 동물원, 테마공원, 박물관 등	-
지역 경제	재래시장	-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일반 소비	교통	- 대중교통(버스, 기차, 택시 등)	-
	의류	- 스포츠 의류 - 정장	귀금속류
	식비	- 일반 음식점	주류, 담배 등

제2절 수당 지급 절차

1. 지역별 인원 배분

- 시군별 청년활동수당 배정의 제 1원칙은 각 시군별로 청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도-시군 예산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됨
- 따라서 청년지원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시군별 인원 배분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가정하고 인원 배분을 함

[표 5-6] 시군별 청년활동수당 배정 규모(예시)

구분	총인원	지원자				유형별 배분				비고
		농촌	중소기업	문화예술	사회복지	농촌	중소기업	문화예술	사회복지	
전북	1,000									
전주	210	100	200	300	300	23	47	70	70	**
군산	130	0	200	300	300	0	32	49	49	***
익산	140	30	50	10	10	30	50	10	10	****
정읍	70									
남원	60									
김제	60									
완주	80									
진안	30									
무주	30									
장수	30									
임실	30									
순창	30									
고창	50									
부안	50									

* : 14개 시군이 모두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배정된 대상 규모로 만약 일부 시군이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을 제외하고 다시 재배정

** : 4가지 유형 모두 지원자가 있을 경우로 유형별 지원자 비율에 따라 지원 대상 규모 결정

*** :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당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지원자 비율에 따라 지원 대상 규모 결정

**** : 총 지원자 수가 배정된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포함

- 인원 배분의 원칙은 청년 인구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총 1,000명의 인원을 각 시군별로 배분할 경우 전주 210명, 군산

130명, 익산 140명 등으로 배분됨

- 지원 대상 분야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가지 대안을 대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도에서 총량 및 분야별 인원 결정

- 이 방식은 시군별로 총량이 결정되고 분야별로도 동일한 비율로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시군별로 청년 유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정책 수혜 폭이 극히 좁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농촌 분야의 경우 시 단위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적은 반면에 군 단위 지역에서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자가 많을 것임
- 따라서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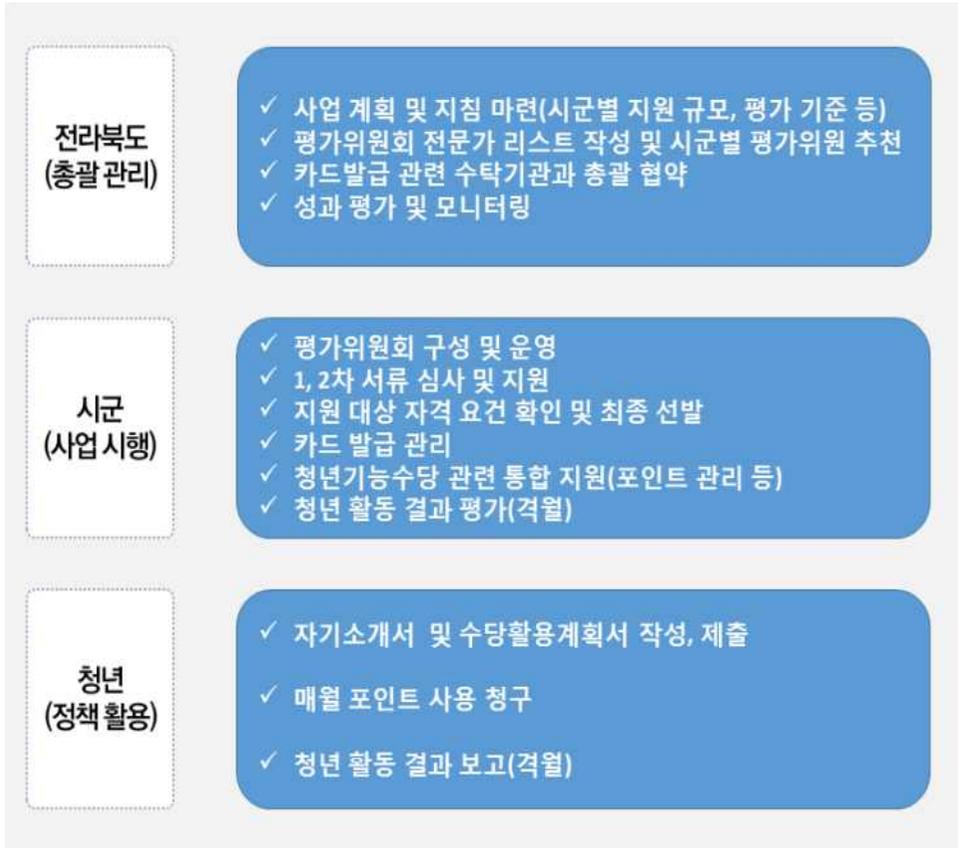
■ 도에서 총량 결정 + 지자체에서 분야별 인원 자율

- 이 방식은 시군별로 총량은 결정되어 있지만 분야별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분야별로 선정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평가가 분야 간 인원 배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 될 우려가 존재함
- 또 다른 방식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의 절충안으로 총량은 결정되어 있지만, 분야별 인원은 해당 시군에서 분야별 지원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 예를 들어 농촌 분야 지원자가 200명이고 중소기업 분야 지원자가 100명일 경우, 선정 인원은 주어진 총량 내에서 2:1로 배분하는 방식임

-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면서 분야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2. 추진 체계

- 청년활동수당 사업은 4그룹이 주체가 되어 추진됨



[그림 5-1] 사업 추진 주체

- 전라북도는 사업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된 업무는 사업 계획 및 지침 마련, 평가위원 관리, 카드 발급 관련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 포인트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됨
- 평가위원회는 전라북도에서 작성한 전문가 명단을 참고하여 시군에서 결정된 자로 구성하며, 청년활동수당의 대상을 평가하는 역할과 집행단계에서

의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시군은 청년활동수당 대상의 자격 요건 확인부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카드 발급, 청년 활동 결과 평가 등 전 단계에서의 지원 업무를 담당함
- 청년활동수당을 받는 청년은 선발 과정에서 관련 증빙 서류와 자기소개서 및 수당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이후, 포인트 사용 신청, 격월마다 활동 결과 보고를 수행함
 - 활동 결과 보고에는 수당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 공고 일 시점에 충족되었던 자격 요건(거주 지역, 근무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

3. 추진 일정

- 청년활동수당을 집행하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전라북도과 시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준비 단계(사업 공고전)

- 전라북도는 정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로 활동할 있는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서류면접 심사 평가 기준 표를 작성하여 시군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함
- 시군은 전라북도로부터 사업 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제출
- 시군으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서를 받은 전라북도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시군들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1,000명을 할당하여 배분하고 평가위원회로 활동할 전문가를 시군 특성에 맞게 추천함
- 시군은 전라북도로부터 할당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내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 단계(사업공고일부터 2개월까지)

- 심사 단계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는 각 지자체에서 총괄하여 진행하며, 전라북도도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각 지자체는 심사 결과를 전라북도에 통보하고 이를 받는 전라북도도는 선정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함
- 청년은 접수 기간 동안 증빙서류 및 자기소개서/수당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 종료 이후 최종 선발 여부를 확인하고 선발된 자에 한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함

■ 집행 단계(사업공고일 2개월 후 ~)

- 카드 발급 절차 과정에서 전라북도도는 최종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발급 기관에 통보하고 복지포인트 운영을 위한 플랫폼 및 DB를 구축
- 각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게 추진 일정을 통보하여 청년들이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매월 청년들이 신청한 포인트 사용에 대해 사용 내역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승인
- 청년 : 매월 청년활동수당 포인트를 신청하고 격월마다 자신의 수당 자격 요건 유지를 증빙하기 위해 청년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함)

■ 모니터링 및 차기년도 신규 자원 심사 단계(사업공고일 12개월 후)

- 복지포인트로 운영할 경우, 전라북도에서 플랫폼 관리를 담당하며, 사업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을 진행함
- 또한 전라북도도는 청년활동수당 지급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성과 평가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년도 추진 계획을 작성
-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접수받고 이를 평가하여 결과를 전라북도에 통보함
- 청년 : 사업 종료 이후 청년활동수당과 관련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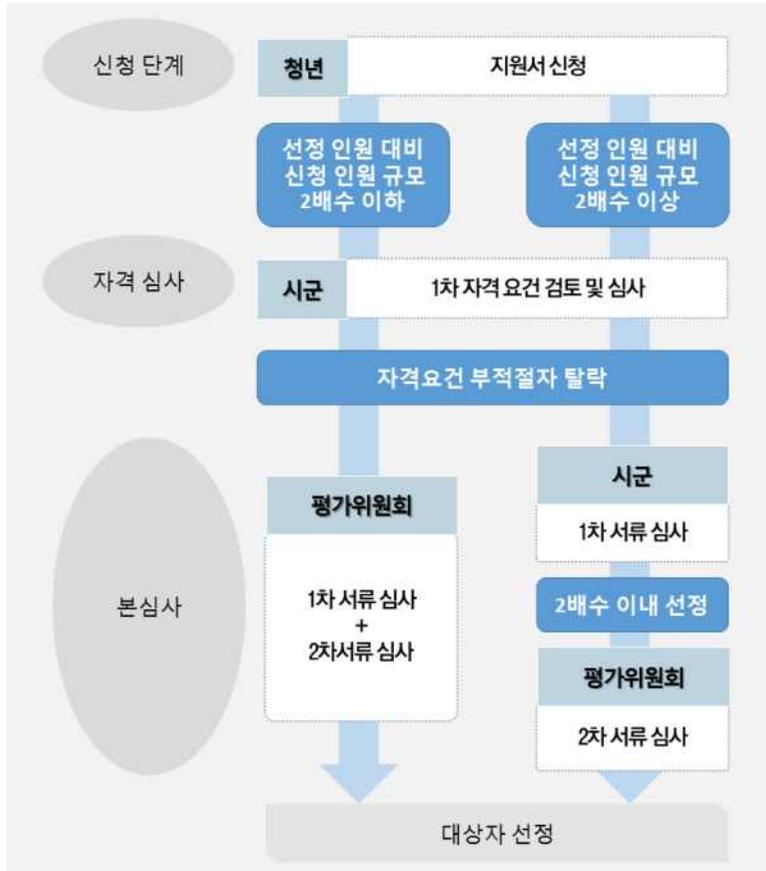
- 차기년도 신규 지원 사업 추진 공고 및 심사는 1차년도 사업 종료 2개월 전에 실시하여 2차년도에 기존 지원 대상과 함께 동시에 추진함

	전라북도 (총괄 관리)	시군 (사업 시행)	청년 (정책 활용)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전문가 리스트 작성 ✓ 서류, 면접 심사 평가 기준표 작성 ✓ 시군 대상 사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계획 작성 ✓ 사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선정 인원 배정 ✓ 평가위원회 전문가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 추진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 및 수당 활용 계획서 작성 ✓ 관련 증빙 서류 준비
심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단계 모니터링 ✓ 심사 결과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심사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심사
집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확정 ✓ 수탁기관(은행)에 명단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에게 추진 일정 통보 ✓ 카드 발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발급 ✓ 매월 포인트 사용 신청
모니터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포인트 관리 ✓ 사업 결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대상 활동 결과 보고서 접수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설문조사 ✓ 수당 활용 결과 보고서 작성

[그림 5-2] 사업 추진 단계별 역할 분담

4. 대상 선정 방식

- 전라북도 시군은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의 활동계획서 및 수당 활용 계획서를 평가하여 전라북도에 추천
-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4인과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구성
 - 외부 전문가는 도내 전문가 2인, 도외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풀은 전라북도청에서 작성하고 필요시 시군에 전문가를 추천함



[그림 5-3] 청년활동수당 대상 선정 단계

- 1차 서류 심사는 정량 평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평가 기준 표에 따라 쉽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이 직접 평가할 수 있음
- 2차 서류 심사는 평가위원(4인)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동점자의 경우 타 지역 출신 여부와 나이 역순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둠
- 선정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2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후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2배수 이내로 대상을 줄인 이후 2차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1차 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대상을 선정함
- 선정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2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1차와 2차 서류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2개의 심사 결과의 합산 점수로 대상을 선정함

5. 선정 평가 기준

1) 1차 서류 심사

■ 공통 요소

- 1단계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각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인 청년으로 한정함
 - 여건에서 따라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로 확대할 수 있음
- 이 외에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전복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부양가족수를 파악하여 전복 거주 년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배점을 부여함
- 수당 활용계획서를 통해 신청자가 수당으로 개인 역량 강화 혹은 문화 생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여 활동수당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청년을 우선 선별함

■ 분야별 요소

- 각 분야별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함
-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속년수를 파악하여 꾸준히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

[표 5-7] 서류심사 평가 항목

구분	필요 서류	평가 기준	
공통	- 소득 증빙 자료 -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수당활용계획서	- 기준중위소득 50~150% - 전복 거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 수당 사용의 적정성	
유형별	농업청년	- 농촌에서의 경제 활동 내용 증명 - 활동 계획서	- 농촌 정착 가능성
	문화예술 종사 청년	- 예술활동증명서 - 예술계 대학 졸업 증명서 - 예술활동 계획서	- 예술창작 활동 여부 - 예술창작 활동 가능성 - 지역문화산업 기여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 사회적경제기업 재직증명서	- 근속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재직증명서	- 기업 근속년수 - 중소기업 기여도
	사회복지시설 종사	- 사회복지 활동 증명서	- 지역 사회복지 기여도
	실업팀 운동 선수	- 실업팀 소속 증명서 - 최근 2년내 경기 성적	- 근속년수 - 운동선수로서의 가치

2) 2차 서류 심사(혹은 면접 심사)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 이내로 걸러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진행하며, 3가지의 평가 지표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활동 가능성, 지역 경제 기여도와 개인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발함

[표 5-8] 2차 서류 심사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사회활동에 대한 자세	목표 의식	- 개인 목표가 뚜렷하고 구체적인가?
	사회 생활 의지	-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수당 활용의 적절성	- 수당을 개인 역량 강화 및 사회 가치 증진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지역 경제 기여도	지역사회참여도	-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사회적 가치활동 가능성	- 지역 사회의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성장 가능성	- 지역 사회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개인 역량	개인 역량 개발	- 향후 2~3년내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가?
	청년으로서의 진취성	- 청년으로서 적합한 인성, 친화력 및 소통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3절 지속 운영 방안

1. 연차별 지원 대상 확대 방안

- 앞서 제시한 6가지²⁸⁾의 지원 대상 유형 중에서 1차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지역 특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농업 청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문화예술 종사 청년과 사회복지 종사 청년임
- 1차년도에 위 4가지 유형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사업 평가 및 수혜자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2차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청년들을 추가하여 지원하되, 총 수혜 대상은 확대하지 않고 유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업 참여 시군이 늘어나면 총 수혜대상을 확대

[표 5-9] 분야별 청년활동수당 지원 시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농업 청년					
문화예술 종사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1, 2차년도 제조업 우선)					
사회복지 종사 청년					
실업팀 소속 운동 선수					
도·시군 예산	7:3	5:5	5:5	3:7	3:7

28) 실제로는 7가지 유형이지만, 타 지역 출신 청년은 각 유형별 선정 과정에서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으로 선정 이점을 주는 것으로 하며, 실제로는 6가지 유형에 대한 선정 과정을 거침

- 앞서 유형별로 선정 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유형별로 청년활동수당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시군별로도 유형별 수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총 수혜대상 인원을 고정한 상황에서 유형별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임

2. 모니터링 방식

- 6개월간의 청년활동수당 지급 과정에서 청년들의 거주 지역 및 활동 유형 등의 유형별 자격 요건이 변동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격월 단위로 활동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제출받은 활동보고서 및 증빙 자료 검토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함
- 6개월간의 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청년 대상 설문조사 및 활동 결과 보고서 분석을 통해 청년활동수당의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실행 계획 수립과정에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

[표 5-10] 모니터링 단계 평가 항목

구분	내용	활용
활동계획 이행평가	당초 계획 대비 이행정도 활동 내용의 부합성 자격 요건 유지 여부	저평가자 대상으로 활동 내용 개선에 대한 컨설팅
지출 적정성 평가	계획 대비 지출 정도 사용처 적정성 평가	저평가자 및 부적정 지출자에 대해 환수 및 지원 중단

6

장

요약 및 결론

Jeonbuk Institute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 연구 배경

- 전라북도는 2017년에 청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면서 청년 취업·고용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도내 청년들의 구직 지원을 위한 수당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수혜 대상 선정 기준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북도 차원에서는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고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평가

-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여러 의무 조건을 두고 있어 정책 대상자인 청년 입장에서 만족도가 낮으며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당 사용의 가능 범위 역시 미취업자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구직 이외 다른 사회 활동 경험이나 인간관계 개선 등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목적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아직까지는 청년수당의 취업률 제고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나 서울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수당의 목적을 너무 목적 지향적으로 두지 않고 사회 생활 및 활동 보장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수당의 효과가 취업률 제고 보다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

준다면, 미취업 청년보다는 취업은 하였으나, 소득 수준이 낮아 사회활동을 할 여유가 없는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수당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임

■ 취업자 대상 청년활동수당의 기대효과

-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충적인 소득 지원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사회 진입의 문턱을 간접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사회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일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 및 삶의 수준 개선을 꾀할 수 있음
- 세 번째는 청년 개인의 역량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가능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탐색 과정과 경험 축적을 통해 경제·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전북 청년활동수당 기본 방향

- 전라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직 수당을 받은 청년이 전라북도에 취업할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책 효과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의 정책 대상을 취업 혹은 창업을 하였으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함
- 또한 전라북도는 농촌 청년, 저임금 청년, 타지역 출신 청년 등 다양한 성격의 청년 계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기에는 비효율적임
- 따라서 전라북도의 활력을 불러 일으키면서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층을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다양화하여 지원해주고자 함

■ 청년활동수당 지원 규모

-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확보한 기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수준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따라서 적정수준(생활임금 혹은 기준중위소득)에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의 최소 수준간의 차이만큼을 지원해준다고 볼 때 최소 6만원에서 최대 90만원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됨
- 청년활동수당 지원 대상이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적정 지원 금액은 30~70만원 선이 될 것임
- 전라북도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을 좁힐 수밖에 없음
-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50~100% 구간에 있는 청년의 1%는 1,128명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지원 금액에 따라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20억~5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 청년활동수당 지원 대상 유형

- 청년활동수당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의 산업적인 특성을 반영한 6+1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농촌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직접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현재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전북 중소기업 연합회에 등록된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록코드로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문화예술 종사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자 중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 종사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청년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실업팀 소속 운동 선수 대상 청년활동수당은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지원포털에 선수 혹은 지도자로 등록되어 전북 소재 경기단체 및 기업 실업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수당 지급 방식

-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4가지 대안 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이들 대안들은 현금, 지역상품권, 체크카드, 복지포인트 연계형 카드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미 기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청년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효용성 측면에서 4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리가 힘들고 정책 초반에 사용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사용이 가능하여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사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어 편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수탁 은행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며, 카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체크카드의 사용 범위를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정책 수요자의 사용 현황을 공공에서 체크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간 플랫폼 구축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위 4가지 대안 중에서 공공 입장에서 사후 정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면서 사용 대상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연계 체크카드가 적절한 방식임

■ 수당 지원 규모 배정

- 시군별 청년활동수당 배정의 제 1원칙은 각 시군별로 청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도-시군 예산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됨
- 시군별로 지원 인원 배정 방식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 총 지원 가능 인원을 결정해주고 지자체에서 유형별로 인원을 자율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
- 이 방식은 시군별로 총량은 결정되어 있지만 분야별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면서 유형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도-시군간 역할 체계

- 청년활동수당을 집행하는 단계마다 전라북도와 시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준비 단계
 - 전라북도 : 평가위원회 전문가 리스트 작성 및 추천, 심사 평가 기준표 작성, 시군별 지원 규모 배분,
 - 시군 : 사업 추진 계획서 작성, 사업 공고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심사 단계
 - 전라북도 : 심사 과정 모니터링
 - 시군 :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
- 집행 단계
 - 전라북도 : 복지포인트 운영 플랫폼 및 DB 구축
 - 시군 : 카드 발급 지원
- 모니터링 단계

- 전라북도 : 복지포인트 플랫폼 관리, 사업 종료 후 결과 평가
- 시군 : 청년 대상 활동 결과 보고서 접수

■ 연차별 지원 대상 확대 방안

- 6가지의 지원 대상 유형 중에서 1차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농업청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문화예술 종사 청년과 사회복지 종사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
- 사업 추진 이후 단계별로 지원 가능 유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제2절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구상하는 기초 연구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그래서 각 유형별로 지원 자격 조건이나 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실제 수당 지원 과정에서 자격 조건이나 심사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 단계보다 더 정교한 기준을 제시해야 사업 추진 이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도 자체 사업이 아니라 시군과의 매칭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청년활동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군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추진 일정을 계획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연구 보고서

- 김성덕(2011), 「제조업의 원천, 뿌리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한국산업기수평가관리원, KEIT PD 이유리포트 Vol 11-6
- 김시백(2015),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잉여자리 창출 방안, 전북연구원
- 김영군(2016), 전북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뿌리기술 발굴 연구용역, 자동차융합기술원
- 김유빈(2018), 청년고용의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8년 3월호
- 김정숙(201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호(2015),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사)환경농업연구원
- 이성희(2018),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와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8년 3월호
- 이승렬(2018),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의 변천과 평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8년 3월호
- 이증섭(2015),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장경석·박인숙(2012),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장세길(2016), 「전라북도 문화통계 체계구축 연구」, 전북연구원
- 정병순(2016),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 조권중(2018),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서울연구원
- 조민호(2013), 「전북, 국가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으로 경쟁력 높여가야」, 전북테크노파크, 이슈엔테크 Vol.13
- 최병근(2017),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홍준표(2018),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벼랑(CLIFF) 끝 위기의 한국 청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8-07

□ 단행본 및 기타 문헌

- 녹색전환연구소(2016),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안녕한가요?」, 청년배당 공론화 연속기획 세 번째
-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 추가경정예산-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17),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 자료집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18년 5월 기준)」
- 전북대학교(2017), 「2017 전북대학교 통계연보」
- 전라북도(2016),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2017), 「전북의 희망 청년세대 분석」

□ 기타

- 뉴스스퀘어(NEWSQUARE) 기사(2017.9.26), 「청년수당, 청년배당, 기본소득」,
<http://www.newsquare.kr/issues/1329/stories/5140>
- 동아일보 기사(2018.2.22), 「청년수당, 구직만큼 인간관계에 많이 써… 고립감 해소 역할」,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222/88787235/1>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17.10.19), 「청년수당 참여자 김가영 씨, “청년수당 참여하며 소속감 생겨...”」, <http://sygc.kr/youthpress/9724>
- 서울연구원 언론보도(2016.8.11),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포기하고 ‘청년수당’ 선택한 이유」, <https://www.si.re.kr/node/55728>
- 서울잡스(SEOUL JOBS) 기획기사(2015.11.30), 「[청년수당이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①] 청년의 좌절감에 공감합니다」,
<https://seouljobs.net/article/기획/youthbenefit1/>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2015.11.18), 「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http://saesayon.org/2015/11/18/17853/>
- 시사IN(2017.11.21), 「청년수당 150일 실험, 결과를 공개합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566>
- 시사IN(2018.3.14), 「청년수당이 바꾼 청년의 삶」,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80>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란?」,
http://www.kawf.kr/social/sub01_1.do
-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http://www.kawf.kr/social/sub02.do>

정책연구 2018-21

청년활동수당 지원 방안 연구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8년 8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45-5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